

임마누엘 *Emmanuel*



이 시대의 희망

노벨 문학상과 풀리처상을 수상한 미국 소설가 존 스타인벡(John Steinbeck)은 1902년 산호세 남쪽 살리나스에서 태어났다. 그는 뜨거운 여름 폭양에 포도가 익어가듯, 경제 대공황이 한참이던 1930년대 농장주들의 거친 폭력과 악랄한 착취로 인해 뜨겁게 익어가던 노동자들의 분노를 그의 소설 '분노의 포도'(The Grapes of Wrath)에 담았다. 어쩌면 그가 살았고 우리가 살아온 지난 20세기의 시대적 특징은 '분노'가 아니었을까?

CONTENTS

이 시대의 희망 2-3

I. 행진 스타일

가정교회, 믿음의 여정 4

가정교회, 함께하는 교회 5

휴스턴 가정교회, 목회자 세미나를 다녀와서 6-7

우리 식구들 이야기 8-9

관상용 포도입니까, 향기있는 포도주입니까? 10

나를 인도하시는 말씀 11

하나님의 교회, 가정교회 12-13

II. 소금과 빛의 생각

안성현 목장을 방문하다 14-15

성경적 세계관, 성경적 우주관을 가진 다음 세대를 키우라 16-17

형제 교회 소식 18-19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20-21

호피 인디언 노인에게 듣다 22-23

임마누엘, 짹짹 짹짹.../ Free to Believe 24

공립학교를 무너뜨려 온 캘리포니아의 법안 25

III. Fortran Drive 사람들

박종화 목장을 소개합니다 26-27

믿음으로 엮어주신 울타리 28-29

비올라 목자 30-31

한바퀴 돌리시고 두바퀴 돌리셔서 32-33

작은 것 하나도 계획하시는 하나님 34

마리나 해변의 일몰 35

7월 4일, 감사했던 하루 36-37

7월 13일 토요일 38-39

6월 7일, 목장 이야기 40-41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42-43

예수님의 사랑과 순종 배우기 44-45

Facing The Giants 46-47

목장에서 나누는 영양만점 레시피 48-49

나의 찬양 50-51

Thanksgiving, 복음 율놀이 52

나무토막이 복이 된 사연은. 53

예녹과의 만남 54-55



20세기는 산업혁명 이후 생산의 수단으로 전락한 노동자들의 분노가 들끓고, 1917년에는 드디어 제정 러시아를 무너뜨리는 것을 필두로 유라시아(Eurasia) 대륙을 분노의 혁명으로 몰고 갔던 시대이다. 또한, 2차 세계대전 중에는 유대인을 향한 분노가 6백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하고, 전쟁이 끝난 후에는 전범들을 끝까지 추적하여 처형하려는 시온주의자들의 분노가 사그라지지 않던 세기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제국주의에 침략당한 민족들, 전제통치에 억압받던 평민들, 전통에 차별받던 여성들, 아직도 사회 인식과 관습 속에 살아있는 노예제도에 고통받던 흑인들의 분노가 폭발했던 세기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20세기 말을 지나 21세기에 들어오며, 우리는 점차 ‘분노’의 시대에서 ‘절망’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음을 느낀다. 기대 반 우려 반으로 시작된 아랍의 봄, 재스민 혁명은 성공하는 듯 보였다. 그러나 독재자에 대한 분노로 연합했던 두 세력, 민주화를 꿈꾸는 세속주의자들과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다시 분열하면서 견잡할 수 없는 혼란(chaos)과 피로 범벅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우리가 안고 있는 이 시대의 문제들을 과연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절망에 빠져든다.

아프리카와 방글라데시 등 서남아시아에서는 수억 명의 사람들이 날마다 처절한 굶주림에 몸부림치고, 매년 1천만 명의 어린이들이 기아와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있어도,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세력은 지구 상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이 절망으로 답답하게 다가온다. 사람 됨됨이를 가르치기를 포기한 교육, 단지 대중의 인기로 영합할 뿐 ‘정의’를 포기한 지 오래된 정치인들, 충동주의(sensationalism)라는 고질적인 병폐에 사로잡혀 있는 언론, 상대주의(relativism)의 물결에 휩쓸리며 추락하는 개인의 도덕과 사회의 윤리의식, 포르노, 마약, 술, 성욕, 지배욕, 탐욕, 우상숭배에 마비되어가는 사람들과 사회

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분노할 힘조차 잃고 절망의 늪에 빠져든다. 우리 역시 그런 사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지난 8월 29일 뉴욕 지하철이 2시간 멈추는 사건이 발생했다. 선로에서 발견된 길 잃은 새끼 고양이 2마리를 살리기 위함이었다고 한다. 감동적인 기사인가? 많은 사람이 재미있게 읽겠지만, 고양이 두 마리를 살리기 위해 그 거대한 지하철을 멈추는 사람들이 어떻게 미국에서만도 매년 100만 이상의 어린 아기들이 엄마의 뱃속에서 살해되는 그런 참혹한 사태에 대해서는 그렇게 침묵할 수 있는지, 그 모순된 현실에 가슴이 아프지 아니한가?

혁명도 전쟁도 교육도 고칠 수 없는 인간의 문제, 욕망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는 인간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세력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 그렇다면 이 세상은 이대로 소망 없이 멸망을 향해 흘러가는 것 외에 다른 길은 없는가? 아니다. 이 세상에 희망이 하나 살아남아 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세상의 마지막이자 유일한 희망,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지상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이 하나 남아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교회’이다(마 16:18).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다.

교회는 세상에 오직 하나 남은 유일한 희망이다. 우리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모여야 한다. 지금은 교회의 모습이 약하고 허물이 많아도, 포기하지 말고 머리 되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함께 모여야 한다. 건물이나 인위적인 조직체로서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일어서야 한다. 아직도 절망의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초대 교회처럼 ‘집에 있는 교회’(고전16:19, 골4:15, 몬1:2, 행2:48, 5:42, 8:3, 20:20)로 세상 한복판에서 모이자. 교회로서 목장이 함께 모여 기도하며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자. 절망하는 세상에 다른 희망은 없다. 교회가 희망이다. -손원배 목사



가정교회, 믿음의 여정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되심을 전혀 보여주지 아니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당신을 믿도록 우리를 부르신다. 러커 블레이크슬리의 말을 인용하면 “믿음이란 단지 삶의 방식이다. 그것은 네가 하루하루 걱정하지 않으며 산다는 뜻이다. 좋을 때나 힘들 때나 하나님을 붙든다는 뜻이다. 무슨 일이 닥쳐오든 다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인생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그대로 존중한다는 뜻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즉 믿음이란 비록 삶이 우리의 바람대로 되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숨은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는다는 것이다.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징후를 보도록 자신을 훈련하는 작업의 과정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참용성 있게 기다리는 삶으로 말이다.

믿음이 고역으로 느껴질 때도 있다. 어떤 때는 나의 삶이 무너져 내리는 듯하며 어떤 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삶에 계시지 않다는 생각도 든다. 또한,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언제나 그런 어려운 상황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고통을 느끼며, 고독을 참을 수 없고 인생이 고된 노동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나 반면 믿음의 여정에는 멋진 휴식처들도 있다. 그 가운데서 안식처도 만난다.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신비스러운 진귀한 순간들을 주신다. 그런 순간들은 드물지만 놀라기에 시야가 탁 트이게 된다. 그리고 그 기쁨의 산 위에서 바라보면 자신의 여정을 초월적 시각에서 볼 수 있게 된다. 갑자기 모든 것이 의미를 갖게 된다. 안개가 걷히고 청명한 하늘이 드러난 것처럼 말이다.

믿음이란 당면한 상황을 넘어 과거와 미래를 보는 것이다. 과거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구속 사역의 이야기가 있으며 미래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하신다는 희망이 있다. 믿음이란 그 큰 그림을 보는 것이다. C.S. 루이스는 “세상의 본질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모두 갈망하는 든든한 행복과 안전을 다 주시지 않는다. 반면에 그분은 기쁨과 낙과 즐거움을 여기저기 흩뿌려 놓으셨다. 결코 안전하지 않지만, 우리에게겐 풍성한 즐거움과 적잖은 환희가 주어져 있다. 그렇게 비가시적 믿음의 자리에 가시적 그림이 들어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살짝 엿보게 될 때, 그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런 장면이 주어질 때 우리 영혼은 하늘로 솟구쳐 오르며, 참된 희망을 품게 된다.” 라고 말한다. 사도 바울은 핍박과 투옥과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경험을 하며 살았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셋째 하늘을 경험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초월한 삶을 직접 체험을 했다. 그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고백한다. 제자의 삶은 그런 보이지 않고 숨어있는 세상 안에서 사는 삶이다. 보이지 않고 숨어있는 세상은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

‘목자로서, 부목자로의 삶이 무엇인가?’ 를 생각할 때마다 결국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새롭게 시작하는 하반기 사역을 앞에 두고 다시 한 번 우리 모두가 믿음의 여정을 가야 함을 되새겨 본다. -조다윗 목사

가정교회, 함께 하는 교회

‘**고**독’이라는 단어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계를 잘 정리해 주는 말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고독하면서도 고독하지 않은 것처럼 여러 대체물로 자신을 포장하고서는 그 안에 갇혀 지내는, 그러면서 점점 더 고독으로 깊이 빠져들어 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데 고독한 영혼들에게 다가가는 교회가 바로 가정교회입니다.

가정교회를 섬기면 섬길수록 ‘함께’ 하는 교회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장년부 가정교회를 섬기게 된 지 얼마 안 되지만, 목장을 방문하여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아! 이분들이 정말 함께 더불어 사시는구나.’ 라는 것을 새삼 깨닫습니다.

한 번은 목장을 방문하여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부부들에게 자신들의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3가지씩 생각해 보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부부 중 한 사람이 먼저 나누고 그다음에 남은 사람이 나누는 후 일치하는 답이 가장 많은 부부를 일등(?)으로 하는 게임 같은 나눔이었습니다.

이 질문의 취지는 부부가 서로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리고 가정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서로 정리하게끔 하는 의도였는데 너무도 재미있어하셨습니다.

남편이 무엇을 이야기할까 궁금해하는 아내, 남편이 말하기도 전에 “나는 당신 무슨 말 할지 다 알아.”라고 당찬 모습을 보이는 아내(결국, 다 알고 있지 못했다는 것이 드러났지만), 아내의 답을 진지하게 듣는 남편들의 모습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가정에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 세 가지만 나누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의 이야기는 그칠 줄 몰랐습니다. 시키지도 않은 가정의 이야기들, 평소에 자기 배우자의 모습에 대한 묘사들을 늘어놓으면서 함께 웃고, 함께 느끼고, 함께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부부의 이야기는 당사자들이 아니면 그 누구도 모른다는 것이 거의 정설(?)에 가까운 것인데, 그런 만큼 부부간의 이야기를 남들 앞에서 한다는 것은 정말 조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정교회 안에서는 이런 부부간의 이야기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잘난 부분만이 아닌 못난 부분에도 함께 하는 교회가기 때문입니다.

어려울 때도 함께하고, 기쁜 일에도 함께하며 ‘함께’ 라는 것이 더이상 부담스러운 단어가 아닌 자연스러운 곳이 바로 가정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교회를 통하여 영혼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교회가 아니라 영혼들에게 찾아가서 함께 하는 교회를 세워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찾아오신 것처럼 임마누엘의 가정교회도 영혼들 곁으로 찾아가입니다. 고독한 영혼들에게, 지친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찾아가서 함께합니다.

늘 목원들 곁에 계셔 주시는 목사, 부목자님들께 새삼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늘 곁에 계셔주시기를 바랍니다. 곁에 있어만 주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온기를 세상에 널리 퍼뜨리는 임마누엘의 가정교회로 계속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언제나 가정교회로 함께 해요!!!
-김태오 목사



휴스턴 가정교회,

목회자 세미나를 다녀와서

4 월의 날씨였지만 공항 문을 나서자 느껴지는 휴스턴 날씨는 한여름처럼 후덥지근했다. 공항에 직접 픽업 하러 오신 목자님을 만나 휴스턴 서울 침례 교회로 향했다. 저녁 만찬부터가 공식적인 일정이었는데 체육관에 펼쳐진 수많은 테이블과 의자 세팅, 테이블 장식, 그리고 잘 차려진 음식을 보며 교회 성도들의 섬김의 수준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었다. 저녁 식사 후 목자 한 분과 목장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한 초신자의 간증으로 세미나가 시작되었다. 목자님의 목장을 하면서 어려웠던 일, 목원 때문에 마음고생 하고 힘들었던 일 그리고 목원들 때문에 기쁘고 감사한 일들을 나누는데 간증에서 진솔함이 배어 나왔다. 목자 간증에 뒤이어 생짜배기 초신자가 나눈 간증은 너무 유쾌하면서도 감동이 있었다. 교회문화가 낯선 이들에게 교회와 신도가 이렇게 비춰지고 생각되는구나 이해할 수 있었고 또한 목자, 목녀(휴스턴 교회에선 부목자를 그렇게 부른다)의 많은 섬김과 기도를 통해 예수님을 영접한 후 거듭난 사람으로 갓 예수를 믿기 시작한, 투박하면서도 목자를 본받아 두 팔 걷어 목장과 교회를 섬기겠노라 고백하는 초신자의 열정과 패기를 느낄 수 있었다. 간증 후 세미나에 오신 목회자분들이 한 분 한 분 자기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적지 않은 시간이 들기에 생략할 수도 있는 순서였겠지만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정 교회의 한 면모를 읽을 수 있는 부분이었다.

첫날 순서가 끝나고 목회자들은 잠자리를 제공하는 여러 목자님 댁으로 향했다. 사모님들을 포함 목회자 가정의 최소한 120명 이상 오셨는데 그 많은 숫자의 인원이다 목자님들 가정으로 흩어졌다. 내가 머문 목자님댁은 자폐아 자녀가 있었는데 내 이름과 같은 '중연'이었다. 나와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을 태어나서 처음 만나보았다. 5일 동안 나는 그 중연이 방에서 잠을 잤다. 방에는 마실 물과 칫솔, 치실 등이 셋

으로 다 준비되어 있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목회자 가정의 세미나에 오시면 목자님은 안방을 내어 드린다 했다. 실제로 세미나 기간 많은 목회자분들이 목자님들의 매스터룸에서 잠을 주무셨다. 불편함을 감수하고 거의 일주일 동안 손님들에게 안방을 내어 드리는 목자들의 섬김은 내게 좀 충격적이었다. 섬기는 것이 체질화된 목자님들을 보면서 가정 교회의 힘이 느껴졌다.

그 후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짝 차여진 세미나 일정 속에도 간증은 매 강의 시간마다 이어졌다. 대중 앞에서 개인적인 간증을 나누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겠지만, 간증 제의를 받고 순종하는 수많은 목자, 목녀, 목원들의 폭포수 같은 간증을 들었다. 목장 모임에서의 삶의 나눔이 익숙하다 보니 간증하는 것이 체질화된 것처럼 느껴졌다. 눈물 없는 들을 수 없는 간증이 넘쳐났다. 휴스턴 교회 담임 이수관 목사님도 간증 들을 때마다 눈물을 닦으셨다. 목사님도 목자, 목녀들이 저런 어려움을 겪었는지 처음 듣게 된다면서 저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목자, 목녀직을 마다하지 않고 수고해 주는 그분들이 매우 소중하고 감사하여, 더 기도해 주지 않을 수가 없다 하셨다. 목사와 성도 간에 쌓인 두터운 신뢰와 사랑이 가슴 가득 전해져 왔다.

내게 잠자리를 제공해 주신 목자님이 이끄시는 목장은 다문화 가정들이 모이는 목장이었다. 인도, 베트남, 미국, 한국 사람들이 모여서 목장 모임도 영어로 진행되었다. 목자님과 한국인 목원들의 영어가 유창하지는 않았지만, 언어와 인종은 목장 모임을 하는데 큰 방해 요인이 되지 못했다. 목원들은 자신들의 여러 가지 삶의 문제(부부 갈등, 경제적 어려움, 가족의 사고사 등)들을 초면인 나의 참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없이 나누고 진심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했다. 실제



로 나의 방문 기간에 목원의 한 가족(다른 도시에 사는)이 급작스런 사고사를 당했고 목원들은 어려움 당한 목원 가정의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 주었다. 세미나 기간 두 번이나 있었던 목장 모임 외에도 남편은 인도인, 아내는 미국 사람인 한 목원 가정은 떠나오는 주일날 오후 내게 식사를 대접하고 책도 선물로 주었다. 한국 교회에서 이방인일 수밖에 없는 이 가정이 계속해서 목장과 주일 예배에 출석하고 봉사하는 것은 그들이 가정 교회에서 경험한 진정한 코이노니아(사귄)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되었다.

토요일 저녁에 내린 엄청난 양의 갑작스러운 비 때문에 장소가 바뀐 초원 모임에 함께 참석한 목자, 목녀들의 나눔 역시 각 가정이 정성스레 준비한 음식만큼이나 풍성했다. 목원이 된 것처럼 초원 목자 앞에서 너스레를 떨기도 하며 목자로서의 애환을 함께 나누는 또 다른 목장 모임이었다. 함께 초원 모임에 동석하신 목사님들이 세미나 기간 받은 은혜와 감동을 나눔으로써 많은 목자 부부들은 수고한 자신들의 섬김에 크고 작은 보상을 얻으셨다.

세미나를 통해 얻은 도전과 감동을 요약해 보자면 무엇보다 가정 교회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되었다.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하고 평원 사역을 시작했는데 ‘교회란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할 만큼 가정 교회에 대한 확신을 얻었다. “평생 목회했지만 이제 가정 교회로 부부가 다시 처음부터 목회하러 합니다.” 연세 많으신 한 목회자님의 고백이 귓가에 남는다. 세미나 기간 아마도 가장 감동이 되었던 부분은 평신도 목자들의 엄청난 헌신과 희생 그리고 섬김의 모습이었다. 공황 픽업과 드랍, 목회자들에게 안방을 내어주고, 매일 아침저녁 라이브에, 식사 준비 봉사에, 이런저런 모양의 자원봉사, 주중 목장 모임 인도 등 생업을 가진 분

들이라 믿어지지 않을 만큼 물심양면으로 도우시고 봉사하셨다. 휴스턴 서울 침례 교회는 소수만이 일하는 대부분 교회와는 달리 정말 목장에서 배운 섬김을 바탕으로 다수가 함께 일하는 거대한 가족 공동체였다. 교회 전체에 섬김의 코드가 깊이 뿌리박힌 건강한 교회라는 강한 인상과 이런 규모의 행사를 매년 치러낼 수 있는 가정교회의 힘과 저력에 놀랐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이 삶에 매진하게 하는가? 무엇이 삶이 던지는 많은 도전과 영혼 구원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목자의 삶에 헌신하고 포기하지 않게 하는가? 그것은 자신들의 섬김을 통해 목장에서 얻어지는 영혼 구원의 열매 때문이었다. 그것이 목자들 간증의 공통된 부분이었다. 한 목자님은 “목회자들을 섬김으로 자신들이 하는 가정교회가 수많은 다른 지역으로 퍼져 나가 사도행전과 같은 교회가 더 많이 생기고 그래서 영혼 구원이 더 많이 이뤄지길 바라는 비전과 소원으로 이 세미나를 돕는 사역을 하노라”고 말씀하셨다. 목회자의 목회를 돕는 보조자가 아니라 평신도 목회자로 주인의 식과 사명을 가지고 가정교회 목회에 뛰어들어 목장의 목원들을 직접 돌보고 섬기는 목자들이 참으로 귀하다고 생각했다. 부족하나마 자신의 사역을 통해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그 맛을 보고 이제는 다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 사람들처럼, 해산의 수고를 통해 아이를 낳는 기쁨을 맛본 어머니처럼 목자의 삶은 언제나 진행형이다.

교회의 존재 가치는 크기가 아니라 깊이다. 작지만 강한 교회가 가정교회라는 확신이 들었다. 우리 교회가 크기에 집중하지 않고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섬김이 라이프 스타일이 되는 교회, 전도의 분업을 통해 잃은 영혼을 회복하고 초대 교회처럼 생명력 있는 가정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한다. - 조종연 목사



우리 식구들 이야기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굳기 하늘 높이 쳐들고~”

목장 심방 때 자주 부르는 찬송가 400장이 이제는 우리 평원 주제가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나가세~”

올해 2월 1일부터 목장 심방을 시작하며 심방 전 목사님들께 목장에 대한 사전 정보를 부탁드립니다. 목장의 기도제목, 목원들의 이름, 자녀들의 이름, 선교지의 상황들에 대해 미리 알고 기도하며 심방을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음식을 준비한다면 시간과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서라도 꼭 1식3찬으로 준비하라고 거듭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불순종(?)으로 준비하신 이름도 생소한 이태리부터 프랑스를 총망라하는 음식들은 저와 김태오 목사님(평원 담당 목사님)의 넉넉한 뺨살을 늘리는 데 부족함이 없는 사랑의 음식들이었습니다.

S.F 심방길, 길을 잃었다가 어렵사리 다시 찾아 동쪽에서 서쪽으로 향하던 시간. 황혼녘 태양의 역광으로 신호등의 불빛이 암흑으로 보여 십자로를 지날 때마다 등골이 오싹오싹 사지가 부들부들 떨리며 사선(죽음의 찬스)을 넘어 목장에 무사히 도착하였던 일.

저녁 시간 다른 분과의 식사 약속 시간을 기다리던 차, 갑작스러운 목장 식구 임종예배의 부르심으로 급히 찾아가던 병원이 하필이면 빈 병원(이사해서)이 되었을 줄이야... 다시 이전 장소를 찾아 한참. 병원 건물을 찾긴 찾았지만, 이번엔 그 넓고 넓은 병원의 많고 많은 병실을 헤매면서 기도 가운데 가족을 찾아 임종예배를 드리며 위로하고 함께 눈물을 흘렸던 것은 주님께서 주신 사랑의 은혜였음을 돌아오는 차 안에서의 감사기도로 확인했던 일.

한결같이 군대 간 아들의 첫 휴가를 맞이하는 가족처럼 맨발로 뛰어 나와 맞이하시는 목장식구들의 환한 모습에 감사드

리며 두 번째, 세 번째 심방도 맨발로 뛰어 나와 맞아주시리라 믿는 것은 목장가족들은 저희(목사님과 저)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주시고 저희는 목장가족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늘 기도로 평원의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기에 언제나 맨발의 환대가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1999년 3월에 21개의 목장으로 가정교회를 시작하여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영혼구원 수의 82%가 가정교회 목장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더라도 가정교회의 교회로서의 역할이 얼마나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지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가정교회 목장을 통하여 영혼구원이 더욱더 왕성해지며 또한 목장의 합심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중보자이신 주님께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선을 달라 했을 때 뱀이 아닌 생선을 주셨고, 떡을 달라는 자녀들에게 돌이 아닌 떡을 주신 기도응답들을 일일이 기억하며 다시금 목장의 기도제목들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까닭은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시기에 우리의 간구(건강, 자녀, 남편, 아내, 직장 및 경제적 어려움)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신실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간 토요일 무숙자 급식봉사, 주일 식사를 위한 주방봉사, 예배안내, 헌금봉헌으로 헌신하신 모든 목장, 목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목사, 부목자님들의 눈물 어린 헌신은 제가 업고 다녀도 부족할 뿐인데,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 생각해 봅니다. 이 시간 감사와 기쁨의 눈물을 닦습니다. 목장 식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굳기 들고 앞으로 나갑시다. 세상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고정훈 장로

관상용 포도입니까, 향기 있는 포도주입니까?



9월의 가을은 많은 열매가 잘 익어가는 결실의 계절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검붉게 익은 거봉 포도를 먹는 즐거움은 9월을 기다리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이 거봉 포도는 잘 익어서 사람의 입에서 깨물어지던지, 또는 짓이겨져서 검붉은 포도즙을 철철 흘리며 숙성된 포도주를 생산하기 위해 재배됩니다.

오스왈드 챔버가 말한 것처럼 포도를 짓이기지 않고는 결코 포도주를 만들 수 없습니다. 포도의 최종 목표는 보기 좋은 관상용 포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잘 익고, 보기 좋은 신앙의 포도 열매를 짓이겨 포도주를 만드시길 원하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잘 익어 보기 좋은 포도 열매에게는 2가지의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서 잘 나오니 그 보기 좋고, 먹음직한 관상용 포도, 그대로를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의 이끄심에 저항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누르시는 그 손가락에 저항한다면 결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향기로운 포도주를 만드실 수 없을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자기 부인을 통해서 그 짓이겨지는 압력에 그대

로 고통스러워 하며, 검붉은 피를 철철 흘리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형상을 닮은 향기 있는 포도주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숙되었다고, 신앙의 열매가 많다고 자부하십니까? 우리의 삶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하나님의 짓이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프게, 그리고 고통스럽게 와 닿는 하나님의 그 짓이기심 가운데, 우리의 자기부인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는, 향기 있는 포도주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섬세한 배려의 손길입니다. 가정에서 희생하는 삶을 자청함으로, 교회에서의 설거지를 자원함으로, 직장에서의 양보를 우선함으로, 삶 속에서 보복할 수 있는 기회에 하지 않음으로, 그 과정이 비록 고통스럽고, 검붉은 피를 철철 흘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짓이기는 손길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자기부인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저의 삶 속에서도 이 가을에는 보기 좋은 관상용 포도가 아닌, The Shaping of a Disciple의 향기 있는 포도주를 하나님께 드리길 서원합니다. -박용갑 장로

The Shaping of a Disciple(by Dale Martin Stone) 중에서

- ... When God wants to mould a man to play for Him the noblest part,
- ... Then watch God's methods, watch His ways!
- ... How He hammers him and hurts him, and with mighty blows converts him making shapes and forms which only God Himself can understand, even while His man is crying, lifting a beseeching hand... Yet God bends but never breaks.
- ... When God tries His splendor out, man will know what He's about!



나를 인도하시는 말씀

제가 아직 불신자이던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방해하는 몇 가지 대표적인 것 중, 성경이 유일한 진리임을 주장하면서도 정작 성경에서 가르치는 윤리 도덕적인 삶의 모습이 결여되어 있던 소위 '신자'들의 모습이 큰 역할을 하고 있었고, 결국 제 자신의 부끄러운 행실이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깨어지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회심을 한 후에는 어떻게 하면 제 자신이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큰 관심이자 고민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교회 장로님의 권유로 마태 복음에 상술되어 있는 예수님의 산상수훈과 마틴 로이드 존스 박사가 쓴 산상수훈 강해집을 읽으면서 그곳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자녀들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접하고 묵상하던 가운데 특별히 한 구절이 제 마음에 커다란 공감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 5:16)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를 구원하셨습니까 바로 이것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함이 마음에 분명히 새겨졌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에 관해 많은 것이 전해진 우리 주변에는 복음을 접하지 못해 구원받지 못하기보다는 먼저 믿는다는 자들을 통해서 전달되는 변질된 신앙의 모습 때문에 복음에 등을 돌리는 자들이 많은 안타까운 현실이기에 너무나도 필요적절한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교회에서 성경 암송대회의 본문으로 주어진 로마서 12장을 암송하던 중, 앞서 주신 마태 복음 5:16의 명제를 실천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알려 주시는 두 번째 말씀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롬 12:1) 착

한 행실로 저와 다른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이루어드리는, 실천적으로 구체적이며 궁극적인 방법은 저의 몸과 이것으로 살아내는 저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삶의 모든 순간에 모든 처소에서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만한 거룩한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회복되고, 내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능력이 우리가 속해 사는 세상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임이고 바로 복음과 구원의 본질임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였습니다. 과연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해서 너무도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그렇다고 도저히 외면할 수 없도록 매우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 이후 이 두 말씀은 성경에 있는 모든 소중한 말씀 가운데 저의 삶에 좌우명이 되었습니다. 비록 많은 순간,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께 죄송해하고 눈물로 회개하면서도, 오늘 이 순간까지 그리고 이생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좌우명이 되어, 그토록 소중한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합당한 모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저의 잘못된 행실이 어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을 훼방하는 것은 아닌지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제 자신을 살피게 하실 것입니다.

종과 종의 집이 대대로 이 귀한 사명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귀하신 피로 값 주고 사신 교회와 그 안에서 영혼구원의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가정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를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준호 장로



하나님의 교회, 가정교회

저희 평원은 평균 나이가 가장 젊은 평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 목자로 헌신해 섬기고 계신 스몰세 분의 목자님들이 대부분 30대 중반부터 40대 중반이고 제가 유일한 50대 목자입니다. 지역적으로는 주로 San Jose 남, 서, 북부 그리고 Cupertino, Sunnyvale, Saratoga 일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목자로 섬기기도 또 목장모임 하기도 힘들텐데 몇 년씩을 성실하게 섬기시는 모습을 보면 고마울 따름입니다. 나도 저 나이 때 저렇게 했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2001년 4월에 목자로 임직, 10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분가한 후 잠깐씩 정기적인 목장 모임을 갖지 못한 기간이 있었지만 한 번도 내가 목자라는 사실과 가정교회에서 생각이 떠날본적은 없었습니다. 목자, 초원 목자 그리고 평원 목자로 역할이 조금씩 커지기는 했지만 역시 저 스스로 갖고 있었던 가장 뚜렷한 identity는 목자였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정교회를 시작한 직후 저희는 이 지역으로 이사하여 우리 교회에 오게 되었고(2000년 9월), 우리 교회 가정교회의 비교적 초기에 목자로 임직해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가정교회에 대해 이런저런 생각도 많았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해볼 수 있을까 하여 의견도 많았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서 가정교회가 얼마나 중요하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왔었나 하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

었고, 저의 무지함과 잘해 보자고 한 많은 것들이 참 미련한 나의 생각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십 수년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많은 부분을 말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그 모든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중 저에게 가장 많이 느껴지는 부분은 낙심한 자들이 마음을 정하고 주님 안에서의 소망을 다시 회복하며, 은혜의 자리에 머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일을 이루시는데 우리 가정교회와 목사님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사용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빌 2:12)는 말씀은 뒤로 하고 영혼구원을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더 좋을 것 같은데, 저 방법이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라고 하면서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다투고 비판하던 저의 모습이 어찌면 하나님께는 그저 철없는 모습으로 보였을 것 같습니다. 저는 모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의 목장을 사용하셔서 우리 교회를 향한 뜻을 꾸준히 이루어 오셨고 이제 한 term의 쓰임이 마무리되는 느낌을 받으며 또 다른 쓰임으로 우리 교회와 목장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기대됩니다. 다만 바라는 가정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인도 하심을 우리 교회 모두가 한마음 되어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는 일에, 하나님의 기대 하심에 제가 잘 순종하기를 기도합니다. -민경진 장로

목자/부목자 수련회



〈목장 탐방〉

안성현 목장을 방문하다



지난 7월 18일 태양보다 뜨거운 열정과 주님 사랑으로 가득 찬 안성현 목장을 탐방하였다. 평소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주인공들이 모두 모여 있었고 반가운 얼굴로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다. 박동운, 박영수 집사님 댁에 모여 손수 만드신 맛있는 순두부 찌개와 정성이 가득 담긴 음식을 나눈 후, 여러 악기가 갖춰져 마치 작은 음악실을 연상케 하는 거실에 여섯 가정, 열 명이 둘러앉아 박동운 집사님의 기타 연주에 맞추어 뜨겁게 찬양하였다.

목장 주제가인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를 찬양할 때 이미 모두 은혜의 바다에 폭 잠겨 있었고 목자님의 기도로 시작된 모임은 한 주간의 큐티와 주일 설교나눔, 서로의 기도제목과 선교지를 위한 기도로 마무리되었다.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 William Carey

안성현 목사님께서서는 10년 전부터 목자로 섬길 것을 권유받았으나 잦은 출장으로 섬기지 못하시다가 3년 전부터 헌신할 마음을 주셔서 믿음이 연약한 새가족이나 교회에 뿌리를 잘 내리지 못하는 분들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지금까지 아름다운 섬김을 이어가고 있다. 목원들은 믿음의 연륜이 깊으신 분들과 이제 막 세례를 받고 기쁘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이 멋진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목자로서 가장 보람된 일이라면 취미 생활로 우연히 알게 된 김환규 형제님께서 목장 출석 1년 6개월 만에 아내와 함께 4월에 세례를 받으신 일과 요양원에 입원 중인 김환규 형제님의 친구이신 김재욱 형제님을 목자님께서 사영리로 영접시키셨는데 그분 또한 지난 4월, 휠체어를 타고 거동이 많이 불편한 가운데 함께 세례를 받으신 일이라고 한다. 매 주일 오후, 목장 식구들이 자발적으로 요양원을 방문하여 김재욱 형제님과 함께 예배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고 한다.

원래 이날의 목장 모임은 상반기 마지막 목장 모임이자 3년 전 목자님과 거래처 일로 알게 되어 올봄부터 매주 목장만 참석하시다가 2주 전 세례를 받고 7월 말 귀국 예정인 김영천 형제님을 위한 송별 모임이기도 했다. 목원 모두 김영천 형제님의 믿음 성장을 위해 귀국이 연장되기를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6개월을 연장해 주시는 기적 같은 일이 불과 이틀 전에 일어나 기도 응답을 체험케 하시니 송별 모임이 축제 분위기로 바뀌고 형제님께서 직접 간증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순희 부목자님께서서는 목장을 섬김에 있어 항상 기쁘고 감사한 일뿐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오히려 섬김과 사랑을 받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안성현 목사님 부부의 삶 가운데 목원들은 당연히 0순위이며 목장을 잘 섬길 때 목장을 통한 영혼 구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올 상반기, 네 명의 소중한 목원들이 세례받는 과정들을 통해 하

나님께서 밝히 보여 주셨다고 한다.

자율사역 기간에는 바베큐 파티와 그라지 세일로 사랑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한다. 작년에는 목장에서 일 년 동안 정성껏 모은 물품과 맛있는 오이지와 빈대떡,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카드를 준비한 ‘복음 실은 첫 그라지 세일’을 통한 수입금 1,300여 불 전액을 열린문 선교회에 크리스마스 선물로 보냄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였다. 올해도 8월 둘째 주에 있을 그라지 세일을 위해 기도로 준비가 한창이었으며 이런 기회가 목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는 감사의 시간이 되었다고 한다.

“한가족으로서 소속감을 통해 신앙 성숙과 하나 됨을 경험하고 있다.”, “진정한 가족사랑을 알게 되었다.”,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괴로움이었는데 지금은 가족보다 목장이 편하고 한 기간이 기다려진다.”, “신앙생활의 재미를 더해 주며 교회 등록 시 목장에 소속되는 것이 우선인 것 같다.”, “첫 목장 방문 때 찬양이 정말 좋았고 먹어보지 못한 음식으로 정성껏 섬김에 감격하였다.”, “1년 전 장모님 소천 시 온 맘 다해 도와준 목장 식구들이 큰 힘과 의지가 되었다.”고 한마디씩 은혜를 나누었다.

이번 안성현 목장 탐방을 통해 사도행전 2:44-47절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대로 느껴졌고 가정교회가 꿈꾸는 진정한 모습이 고스란히 담긴 건강한 목장, 제자를 뛰어넘어 제자 삼는 목장, 한 영혼에 집중하는 아름다운 목장의 롤 모델을 엿볼 수 있었다.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우리의 영원한 목자이신 주님을 닮아가는 작은 예수로써 충성을 다 하는 목자, 부목자, 목원들의 섬김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위대한 현대 선교의 아버지인 윌리엄 케리의 말을 다시 한 번 새겨 보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편집부 김정신

성경적 세계관, 성경적 우주관을 가진 다음 세대를 키우라!(2)

성경적 세계관이란?

‘성경적 세계관’, ‘성경적 우주관’이란 성경적 가치관과 기준을 갖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그것은 온 우주의 창조자 되신(누가?)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질서’를 통해 (어떻게?) 우주 안에 존재하는 자연, 인간, 동물, 우주의 법칙들을(무엇을?), 인류와 우주 속에 심어주셨다는 것을 깨닫고(정체성),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인생의 나침반(목적)과 인생의 지도(방향)를 보여주는 것이다. 성경적 세계관이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포용하고 책임지는 것을 의미한다. 가정, 사회, 문화, 교육, 정치,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물질 관리 등 다양한 삶의 분야에 적용되어야 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우리가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행복하게 누리라고 주셨기 때문이다. (요 1:2-3, 창1) 만일 세상 속에 무너지고 망가진 부분들이 많아진다면,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청지기 사명을 제대로 못 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보통 교회 안에서 잘못 가르쳐지고 있는 ‘세상일 vs 교회일’ 때문일 지도 모른다. ‘성경적 세계관’을 제대로 이해하고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일이며 다음 세대들은 무엇을 하든지 책임감을 가지고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세상도 하나님의 것! 정복하고 다스리며 누리라!

16 ‘세상 것’이라서 더럽고 추악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안 계셔서 더러워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향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타락할 수밖에 없다. 장님(세상)은 길을 헤매는 게 당연하며, 파괴되는 것 또한 당연하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늘어나는 세상의 ‘악’에는 무관심한 채, 세상은 무조건 더럽다고 ‘우리끼리’의 문화를 높이 쌓아왔기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빛과 소금(그리스도인들이)이 적은 세상은 당연히 더럽고 추악하게 타락할 뿐이다. 내가 ‘세상일’을 한다고 해서 ‘세상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무엇을 위하여(사명), 누구를 위하여(세상 또는 하나님) 하느냐에 따라 ‘세상일’이 될 수도 ‘하나님의 일’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꼭 목사나 선교사가 되어야만 훌륭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직업이 무엇이든지, 지금 내가 성경적인 원리 원칙 안에서 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훌륭한 일이 되며 청지기로 서의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전10:31)

‘성경적 세계관, 우주관’은 필수!!

-그 유익성과 결과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을 ‘성경적 세계관과 우주관’을 갖도록 키우는 것은 특별히 마지막 시대를 사는 모든 사람에게 중요하다. ‘성경적인 세계관, 우주관’ 안에서 ‘나의 정체성’이 확립되고, ‘나의 사명’을 찾으며, ‘삶의 목적과 방향’이 뚜렷해지기 때문이다.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은 세상에 휩쓸리기보다는 세상을 이끌어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도 부러워하는 진정한 Global Leader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 세대들이 성경적 세계관과 우주관을 배울 때,

- 1) 그들은 무엇이든지 열심히 한다.
- 2) 인생에 대한 태도가 바뀌게 된다.
- 3) 인생의 선택들이 달라진다.



그들이 똑같은 공부를 하고 똑같은 일을 해도, 살아가는 이 유가 달라지고 목적이 뚜렷해지며, 자신들이 걸어야 할 모

든 삶의 과정에 있어(불확실한 미래까지 포함하여) 가장 귀한 의미가 생겼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역동력이 있으며 생명력이 넘쳐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도 부러워하는 자들이 된다.

성경적 세계관, 우주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았을 때의 위험성은 매우 치명적이다.

만일, 부모와 교회들이 다음 세대를 ‘성경적 세계관과 우주관’으로 채워주지 않는다면 세상이 먼저 자녀들을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득히 채우고 그들을 억압해 올 것이다.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되는 다음 세대들은 결국 세상이 만들어 놓은 ‘허무한’ 쳇바퀴 속에서 허무한 목적을 가지고 달리고 또 달리다가 지칠 수밖에 없다. 세상의 것이 무조건 나빠서가 아니라 성경적 세계관과 우주관이 없으면 ‘장님(나)이 장님(세상)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인생은 너무 힘든 고통이 되어버린다. 세상이 만든 시스템 안에서, 세상의 기준으로, 시대의 유행들을 따르다가 피곤해지고, 우울해지며, 올라가도 잡을 수 없고 만족하지 않은 정상에 대한 절망으로 파멸하기 때문이다. ‘성경적 세계관과 우주관’을 상실하고 산 사람들, 국가들, 사회의 결과는 성경과 인류 역사 속에 매우 자세히 나와 있다. 파멸과 멸망뿐인 것을.

성경적 세계관을 어떻게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나?

‘건강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다음 세대’는 ‘건강한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부모들과 교역자들’을 통해 양육되고 키워질 수 있다. 어른들이 먼저 성경적 세계관을 배우고 섬세한 가르침과 삶으로 직접 본을 보여주는 부모들과 교역자, 선생님, 멘토들이 필요한 때이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하듯, 다음 세대들에게 가장 먼저 ‘성경적 세계관’을 신앙의 유산으로 전달해 줄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해야 한다. 성경적 가치관으로 통치되지 않는 물질, 권력, 아름다움, 모든 것은 자연스레 타락하고 추악해지기 때문이다. 그 증거로는 유럽과 미국의 현 정세를 보면 알 수 있다. 돈과 명예가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 돈과 명예를 어떻게, 무엇을 위하여 사용하느냐에 따라 흥망과 진정한 인생의 행복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세상은 하나님이 절실히 필요하다. 가장 중요하다고 믿었던 공립학교 교육과 수준을 높여주던 문화, 국민을 지켜주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들이 다 모래성고 같이 무너지고 있다. 그래서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의 도움을 간절히 요청하고 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귀를 열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맴돌며 우리끼리만 너무 잘 살고 좋아하고 있지는 않은지... ‘성경적 세계관과 우주관’으로 다음 세대에게 더 높고, 더 크고 넓은 비전과 꿈을 심어 주어야 한다. 어른들부터 세상 속에서 상실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회복할 때이다. 우리가 먼저 청지기로 사는 삶을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이다.

세계 교회들에 대한 설문조사와 통계를 보니 한인 교회들은 세계 선교는 A+ 를 받았지만, 사회 참여도나 문화 발전, 세상을 변화시키는 창의력과 기여 부분에서는 거의 D와 F 수준인 것을 보며 같은 한국인으로서 부끄럽지만 동감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통계들은 지금 한인 교회들의 실체를 매우 잘 지적해 준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교회와 가정 교육이 바뀌어야 할 때이다. 지금 캘리포니아와 매사추사스 지역의 공립학교시스템은 완전히 무너지고 있으며 다시 일으키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가정과 교회가 함께 손을 잡고 우선 교육을 회복시켜야 한다. 홈스쿨링과 private 학교 시스템을 가지고 ‘성경적 세계관과 우주관’을 가르쳐야 함이 지금처럼 시급할 때가 없었을 것이다.

‘성경적 세계관과 우주관’은 다음 세대를 살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인생관을 심어줄 가치관이다. 가정관, 결혼관, 인생관, 물질관, 생명의 존엄성, 관계의 법칙들이 성경의 기본 원리 원칙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다음 세대는 다시 건강하고 밝게 일어날 수 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김새라 사모



선교위원회 선교 비전부
소수 민족 지원팀이 섬기고 있는

형제 교회 소식

선교 비전부의 섬김은 '우리 교회의 남
는 리소스를 나누어 우리 이웃의 소수 민
족 교회들이 자립하고 부흥하여 현지 이
민사회뿐만 아니라, 자국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자국 선교에 전심을 다할 수 있
도록 돕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란교회

현재 서니베일에 자리 잡고 있으며, 대략 450여 명의 성도
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숫자에 비해 재
정적으로 많이 열악한 상황입니다(성도들의 약 20% 남짓만
이 헌금을 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이 난민으로 미
국에 온 처지라 상황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목사님은 예전
에 엔지니어였고 얼마 전부터 풀타임으로 사역을 하지만, 아
직 사례는 받지 못하고 예전에 있던 회사의 주주이기 때문
에 그곳에서 사례를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현재 우리교회와 협력하고 있는 사역은 tutoring ministry입
니다. 난민들이 대부분이고 그 아이들이 미국에 오기 전 전
혀 교육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 대부분이 중고등학교에 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학교만 왔다갔다만 하기에 왕따나
불리(bully)의 대상이 되기도 한답니다.

우리 교회 대학생들과 youth에서 5명정도가 tutoring을 할
예정이며, 8월 24일부터 tutor들에 대한 교육을 한 후 9월
부터 사역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란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며 또한 이 사역에 참여하는 우리 아이들

도 extra activities credit을 받는 것 외에 인성 및 신앙적으로
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도제목

- Refuge Ministry는 이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 중 하
나인데 이번 tutoring 사역의 진행을 보면서 다른 사역들로
넓혀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refugees home stay-
ing, airport pick up, riding, public affair assistance,
etc.)
- 우리 교회의 좀 더 많은 아이들이 tutoring ministry에 참
여할 수 있도록
- 이란 교회는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위성방송, 인터넷 방
송을 통해 이란, 아프가니스탄 등지에 자국어인 파시어로
방송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역에 열매가 생기고
있는데, 자금과 콘텐츠 확보 부족으로 힘들어하는 실정입
니다. 이 사역에 필요가 채워져서 이란 아프간 현지에서
어려운 가운데 복음을 듣는 많은 형제들이 방송을 통해 성
령님의 위로와 기쁨 부으심을 충만히 경험하여 그곳에서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몽골교회

현재 대략 8천여 명의 몽골인들이 베이징지역에 있으며 오를랜드 교회는 이 지역의 유일한 몽골 교회로서 미국교회 일부분을 렌트,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약 50여 명의 성도님들이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아직은 재정적으로 열악하여 목사님께서 파트 타임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지난번 선교위원회 바자회에서 모은 헌금으로 어린이 놀이터 공사를 하였습니다.

기도제목

- 젊은 지도자가 세워져서 영어로 2세대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양육할 수 있기를
- 목사님께서 풀타임으로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 두 곳의 가정교회를 개척 중인데 이를 위해 필요한 교역자와 환경들이 허락되기를
- 몽골 교회에서 버클리 지역에 거주하는 만여 명의 티벳인을 품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언어와 문화가 다른 이민족이지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티벳 이민 사회의 복음화를 위해 준비하는데 잘 준비되어 사역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길.

미얀마교회

상항 침례교회에서 저녁에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대략 40-50여 명의 교인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연령이 높은 편이고, 재정적으로도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재 베이징에 10개 정도의 미얀마 교회가 있는데 아직은 모두 열악한 형편에 있는 성도 50-100명 정도 모이는 교회들입니다. 오는 12/22일 VIP 초청 잔치에 저희가 음식을 만들어가 그 곳 초청잔치에 도움이 되려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도제목

- 재정적으로 돕는 것 외에 어떤 방법으로 협력 사역을 할 수 있을지를
- 많은 미얀마 불교 신자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복음의 일꾼들로 세워져, 새로 열리고 있는 자국 미얀마에 복음의 전도자들로 파송될 수 있기를

아프가니스탄 교회

이곳은 ONE VOICE에서 적극적으로 돕고 있고 저희가 재정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

- 아브라함 목사님께서 아프간인 몇 사람과 얼마 전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교회가 잘 성장해서 아프가니스탄 이민 사회와 아프가니스탄 자국 선교의 중요한 베이스캠프가 되도록
- 매년 5천여 명의 아프간 난민들이 미국으로 오며 또한 상당수가 베이징지역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고민해 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 가운데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각나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CEF(선교부 양희영 집사님께서 사역하시는 어린이 교육 선교 단체)

주로 라틴 어린이들을 말씀으로 교육하는 선교 단체입니다. 가정들이 열악하여 아이들 대부분이 방치되다시피 한 상황에서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돌보아 주는 사역은 정말 소중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이라 생각합니다. 매주 2-3시간 정해진 시간에 club 별로 모여 성경공부를 하고 여름에는 5 Days Club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이 말씀 안에 잘 성장해서 라틴 이민 사회의 영적 리더쉽으로 잘 성장, 가정을 살리는 것은 물론 지역과 자국 복음화에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기도 제목

- 우리 선교위원회뿐만 아니라 전도/교육위원회에서도 동일하게 교회의 지역사회인 ALVISO 지역을 품고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로 잘 준비하여 내년에 꼭 그곳에 CLUB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들이 잘 준비되도록 길을 보여주시고, 돕는 손길들을 붙여주시고, 많은 분의 경험과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병용

〈선교 간증1〉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어느 곳에 있든지...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주일마다 울려 퍼지는 이 찬송이 어찌 그리 심령을 움직이는지요. 백 칠십이 넘는 많은 민족이 집중적으로 모여 사는 이곳 베이지역에 저도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집에서 가까운 산마테오 시의 중남미 아이들이 많이 사는 곳으로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어렸을 때 주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신자 중 85%가 4-14살 때에 예수를 영접했다는 것도.

처음으로 그곳에 간 때가 2000년 여름이었습니다. 이곳저곳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었고 스페인어 말이 들려 오고 아이스케키 아저씨, 옥수수, 망고 아저씨가 손수레를 끌고 팔러 다녔습니다. 그곳은 완전히 딴 세상이었습니다. ‘애들이 참 많이 보이네. 와!’ 제 눈에 는 모두가 다 보석 같아 보였습니다. ‘보석들이 왜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 거지?’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실시하는 여름방학의 5일 클럽을 통하여 King Community Center에 방을 하나 빌려 어린이들을 초청하였습니다. CYIA (Christian Youth In Action)에서 훈련을 받은 몇 명의 중, 고등학생들이 한 조가 되어 성경 말씀과 암송 구절, 노래, 게임 등을 가르치고 저는 부모님들에게 허락을 받아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일을 맡았습니다. 대부분 어린이들은 예수에 대해서 몰랐고 마리아를 여신처럼 생각했습니다. 놀고 파티하는 것은 좋아서 오는데 말씀 배우는 부분에는 통 관심이 없었습니다.

한번은 그곳 교회에서 5일 클럽을 하라고 장소만 빌려 주었습니다. 장소가 달라지니 아이들을 찾아다녀야 하는 곳이 거친 들판이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정처가 없고 길이 없었습니다. 진땀이 났습니다. “내가 길ियो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 길을 열어 주세요.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러기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요. 몹시 외로울 때, 순간 너무도 생생하게 같이 걸어 주셨던 예수님을 절대로 잊지 못합니다.

어떤 아이들은 창문도 없는 창고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돌아서는데 한 그루의 오렌지 나무 열매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반짝반짝 빛이 나더군요. 하늘은 한없이 푸르고 나무의 뿌리는 굳건히 땅속에 자리를 잡은 채. 그러나 그 주위는 깨어진 유리와 부서진 의자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환경이 힘들고 안 좋아도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영원한 생명에 소망을 두고 살면 성령의 열매와 전도의 열매를 이렇게 풍성하고 아름답게 맺겠구나.’

바람 부는 날, 새소식 반에서 사용하는 그림들이 날아다녀 그것들을 잡으러 다니던 일, 춥고 비 오는 날, 지붕 있는 파킹장에 깔아 놓은 돗자리에 앉아 두꺼운 오버를 입은 채 튼던 아이들, 차 트렁크에 가득 차 있는 접이식 작은 아이용 의자들과 작은 테이블, 파킹장 바닥에 떨어진 차 기름이 묻어 냄새나는 돗자리를 가득 신고 다니던 일, 썩은 오렌지를 던져대던 아이들, 작은 돌들을 유리창으로 던져대던 아이들, 고무줄 총을 쏘는 아이. 엠플릿 아파트에서 새소식 반을 하다 더는 할 수 없어 울면서 이곳에 언젠가 다시 회복의 때를 달라고 기도하던 일들이 생각납니다.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마태복음 18:14), ‘주님! 저에게는 정말 사랑이 없습니다. 주님의 심장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는 정말 죄와 허물과 실수밖에는 주님께 드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중보 기도자들의 기도를 들으사 양육을 잘하시는 어린이 전도사님을 보내 주셨고 그로 인해 새소식 반들은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개 반으로 시작했는데 백 명이 훨씬 넘는 열 개의 클럽들과 중등부 반도 허락하셨습니다. 아직도 한없이 부족하기 이를 데 없지만 어떤 아이들은 성경을 두 세 번씩 읽기도 하고, 또 중보 기도를 할 줄 알게 되고 성경을 찾을 줄 알게 되고, 복음을 정확하게 알게 되고….

저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은 아이들이 하나씩 모일 때마다, 반이 하나씩 생길 때마다, 아이들이 오기를 좋아할 때마다, 아이들이 예수를 영접할 때마다 언제나 함께하셨습니다. 빈들에 퍼져 가는 민들레 씨같이 이 복음의 생명의 씨가 퍼지고 또 퍼지어 Bay Area의 모든 어린 심령들에게 어서어서 퍼지고 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양희영(김기홍 목사)



<선교 간증2>

호피 인디언 노인에게 듣다

올해 들어 기도도 잘 안 되고 소강상태 같은 저의 신앙 가운데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싶다고 소망할 때 호피 인디언 단기 선교여행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훈련을 받고 몇몇 분이 팀에 나왔다고 들어갔다가 반복하면서 막연한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팀원들 간에도 서먹서먹함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래 선교원에 남아서 건축 선교팀을 도우라는 말씀에 순종, 그러겠다고 했지만, 팀원들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하기만 하였습니다. 게다가 팀원 중 아픈 분들이 생기고, 저도 시어머님이 위중하시니 준비하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음이 몹시 무거웠습니다. 모두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출발하였습니다.

현지에서 반 정도의 인원이 호피교회로 떠나고 나머지 팀원들과 선교사 사모님과 덩그러니 남았을 때는 조금 힘든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더러 어떤 일을 하라 하지 않으시고, 그냥 나의 어리석은 부분들을 돌아보길 원하셨습니다. 팀원들과 하나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팀원을 한 분 한 분의 귀한 헌신과 순종을 보면서 저의 완악함을 보게 하였고, 티끌과 벌레 같은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선교사 사모님과 귀한 만남을 통해 그분 안에 있는 상처도 돌아보게 하시고 복음을 부끄러워하며 전하지 못하는 저를 훈련하기도 하셨습니다.

토요일 건축을 마친 팀원들과 호피 교회로 올라가 일흔이 가까운 연세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젊은이보다 더한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을 통해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느꼈고, 참담하고 아픈 현실 속에 놓여있는 몇몇 호피 가정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아픔을 느꼈습니다. 지금은 문을 닫은 교회 옆 작은 방에 사시는 일흔이 넘는 인디언 노인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스트룩이 벌써 몇 번씩 울고 신장기능도 망가져 걷지도, 말썬도 제대로 못 하셨습니다. 젊었을 적에는 인디언 토속신앙의

리더로 인디언들 가운데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던 분이었는데 어떤 사건으로 리더에서 쫓겨나 교회에 붙어있는 작은 집에 사시며 예수님을 영접하셨다고 합니다.

외롭고 고통스러운 삶을 사시던 자신에게 다가온 우리 팀원들의 사랑에 감동하신 그분은 다음날 주일, 불편한 거동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예배당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분과 같이 온 여자분은 20대 후반의 손녀로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버림받아 혼자 살아오며 단 한 사람 혈연인 할아버지의 케어를 전혀 받지 못해 할아버지를 원망하고 분노하며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방문으로 서로의 마음을 열기로 작정, 예배시간에 간증하며 화해를 하였습니다. 더군다나 할아버지는 교회에 모인 인디언 동네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에게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상 송배의 리더이셨던 그분이 공개적으로 자신이 예수의 제자 됨을 고백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또한, 손녀의 손을 잡으며 직업이 없는 손녀에게 나를 보살펴 달라고 부탁할 때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손녀도 우리의 복음 제시에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힘들었던 삶과 악물, 알콜중독으로 망가져 가던 자신을 고백하고 자신의 할아버지를 용서한다고 하였습니다. 온갖 육체의 질병으로 말도 제대로 못 하는 꺼져가는 등불과도 같은 인디언 노인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절절히 느껴졌고, 깨어진 가정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되는 경이로운 순간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강렬한 사랑을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아직도 그들에게 복음이란 원수 같은 백인들의 전유물로, 어쩌면 고급 종교로, 어쩌면 부르조아 사상으로 다가와 마음을 열기 힘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직도 하루가 멀다고 그



들의 신 '키바'를 부르며 의식을 행하는 그들에게 복음은 먼 나라 얘기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티끌과도 같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희망 없는 그 땅을 바라보시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많은 선교사님을 사용하고 계시고, 저희를 통해서도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같이 술과 마약과 복잡한 가정사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들에서 벗어나고 싶어 몸부림치지만, 자신만의 의지로 되지 않음을 한탄하고 있었습니다. 한사람도 예외없는 문제들에 놀랐고 미국 안에 이런 곳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도 않았

습니다. 끝도 없는 사막 한가운데 열기설기 지어놓은 집들과 그들의 표정없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복음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열릴까 하는 회의적인 마음도 들었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매 메마른 그들의 눈에서 눈물이 흐를 때, 사막에 물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풍요롭고 모든 것이 차고 넘치는 세계 일류강국 미국 안에 마치 딴 나라, 섬처럼 놓여있는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김한경(위현량 목장)



“임마누엘,
 짹짹 짹짹 짹짹...”

축구 좋아하십니까? 2002년 한국에서 열린 월드컵을 응원하러 밤잠을 설치며 혹은 이곳 그 마켓 앞에 모여 앉아 짹짹 짹짹 손뼉을 쳐 보셨습니까? 이제 다시 그 열정의 경기가 펼쳐집니다.

이번 11월(구체적 날짜 미정) Sunnyvale Iranian Church와 전도 축구 경기가 열립니다.

특히 주님을 믿지 않는 이슬람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리 임마누엘과 이란 교회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만민을 초청하여 이란과 한국 축구시합을 통해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기도 모임이 매주 화요일 저녁 7:30분 이란교회와 임마누엘 교회를 번갈아 가며 열리고 있습니다. 또한, 매주 토요일 아침 9시 임마누엘과 이란교회 형제들이 함께 기도하며 축구로 친교를 나누고 있습니다.

열정의 짹짹 박수, 이제 기도로 대신하여 주십시오. 황금의 발들이 골문을 가를 때 믿지 않는 이들의 함성이 할렐루야로 바뀌는 하나님의 꿈의 구장을 기도하십시오! -장길창

FREE TO BELIEVE

- * 학교에 종교적 문구가 들어간 옷을 입고 갈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금지하지 않는 한).
- * 주제와 관련된 한 신앙에 대해 글을 쓰거나 발표할 수 있습니다.
- * 쉬는 시간에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 * 듣기를 원하는 친구에게 자신의 종교관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 * 성적이나 투표 등과 같은 독립적인 기준에 따라 연설자로 선정된 경우 학교 측의 동의 없이 연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입니다.

- LIBERTY INSTITUTE FREE to BELIEVE CAMPAIGN 중에서 보다 자세한 정보는 <http://www.libertyinstitute.org> 참고
 The Liberty Institute is a conservative Christian advocacy and legal defense organization founded in 1972



공립학교를 무너뜨려 온 캘리포니아의 법안

AB 537:

1999년 캘리포니아에서는 거의 처음으로 공립학교에서 동성애자들이 공공장소에서 자신들의 성 정체성을 알려도 보호받을 수 있으며 심지어는 동성애/성전환자에 대해 가르치기 위해 교사가 남장/여장을 하고 가르치는 것도 허락.

AB 1785:

2000년 캘리포니아의 State Board of Education이 공립학교 모든 교과서에 'Human Relationship Education', 'Diversity' 교육을 집어넣어 필수화 함. 이는 '자기와 다른 사람'을 포용하는 교육이나 동성애 교육을 옹호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도 할 수 있음. 당시 'Diversity 다양성/포괄성'이라는 단어의 획기적인 유행을 만들어 낸 이래 학교, 기업, 문화, 결국은 정치 속까지 깊이 들어와 21세기 미국의 흐름을 상징하는 아이콘이 됨. 또한, 이 법안에 의해 교사의 친 동성애 교육이 의무화됨.

SB 71:

2003년에 제출되어 2008년 통과. 이는 공립학교의 '성 건강 교육 Sexual Health'의 기준을 매우 비도덕적으로 낮춰 버림. (예, 초등학교 5학년 학생도 합의 하에 의해 콘돔이나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함으로써 '안전한 safe' 성관계 갖기를 가르치게 됨). 또한, 동성애, 양성애, 성전환자와의 성관계도 정상적인 성관계로 가르치도록 함.

AB 394:

2007 'Anti-harassment 괴롭힘 반대운동', 'Anti-discrimination 차별반대운동'의 이름으로 법안 통과. 학교와 학생, 학부모들에게 동성애, 양성애, 성전환자들에 대해 긍정적으로 공공연히 자연스럽게 접할 기회 제공을 장려하는 법안. (예, 학습시간에 extra 교과서처럼 만들어 사용하는 자료들을 포스터, 학교 웹 사이트, 아이들에게 나눠주는 뉴스레터 등 동성애에 더 친근감을 갖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법안).

SB 48:

2010년부터 제출되어 한인들이 함께 처음으로 싸웠던 법안.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K-12)의 교과서를 동성애/양성애/성전환자에 대한 내용을 긍정적으로만 왜곡해서 가르치도록 내용을 바꾸게 하는 법안. 2012년 동성애 지지자이며 매우 자유주의 편에 서 있는 주지사 Jerry Brown이 통과시킴.

AB 1266:

2013년 8월, 성전환자 아이들을 위해 만든 법안이라고 하나 사실상 K-12 학년 아이들의 성 정체성을 가장 흔들려 놓은 법안. 현 주지사 Jerry Brown이 통과시킴. 만일 이 법안을 크리스천들이 뒤집지 않는다면, 2014년 1월부터 모든 공립학교에서 시행됨.

박종화 목장을 소개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 6:33-

저희 목장은 2013년 2월, 김영곤 목장으로부터 분가하여 나온 신생 목장입니다. 현재 목자 가정을 포함해 네 가정이 모이고 있으며 피치 못할 출장이나 몸이 좀 불편하신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출석하고 계십니다. 저희 목장에서 가장 어린 자녀들은 11학년이 두 명, 그리고 다른 자녀들은 모두 대학생이거나 장성했기 때문에 목장 모임에는 주로 어른들만 참석하고 있으며 가끔 파트 락이나 피크닉을 할 때는 자녀들과 함께 모이고 있습니다. 지난 7월 4일, 김영곤 목장과 연합해 산본 파크로 피크닉을 갔었는데 자녀들까지 모두 모여 바베큐와 하이킹 등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목장 모임은 매주 토요일 7시에 시작합니다. 가끔 특별히 식사를 준비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함께 다과를 먹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감사하게도 목원들께서 모두 가정을 오픈해 주셔서 각 가정을 돌아가며 목장이 열리며 목장 진행은 가능하면 교회에서 권장하는 순서를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45분 정도 다과와 함께 지난 한 주간의 이런저런 삶을 나누는 후, 10분 정도 찬양을 합니다. 저희 나름대로 작은 찬양집을 만들어 찬송가부터 최근에 나온 복음 성가까지 다양하게 찬양하고 있으며, 특히 저희 목장에서 가장 즐겨 부르는 찬양은 ‘아굽의 축복’ 입니다. 찬양 후에는 지난주 설교 내용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9시가 되면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소리 내 합심 기도를 한 다음, 9시 30분에 모임을 마치며 끝나는 시간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항상 제 시간에 마치고 있습니다.

구명관 목장에서 김영곤 목장으로, 또 거기서 저희 목장으로

분가하기까지 2년 반이라는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목원들은 목자와 부목자 그리고 다른 성도님 한 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신앙생활을 한 지 몇 년 되지 않으신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대로 그냥 따라가면 모든 게 잘 될 거라는 마음으로 시작하긴 했지만, 한편으로 동역자가 필요한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은 지금, 작은 새싹과도 같았던 목원들의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에서, 무숙자 봉사 등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목장에서 나누는 목원들 일상의 작은 간증들을 통해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새싹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이지만, 이번 봄에 깻잎 모종과 돌미나리를 목원들 각 가정에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름 동안 깻잎과 미나리를 텃밭에서 따서 먹는 즐거움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돌미나리는 예전에 알고 지내던 전도사님으로부터 분양받은 것인데, 그것이 몇 년 후 목원들의 각 가정으로 퍼져 나갔고 언젠가는 또 그 집에서 다른 집으로 분양되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돌미나리가 퍼져 나가는 것이 마치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의 사역과 많이 닮지 않았나요? 목원들의 믿음이 잘 성장하고 있으니 이제 저희 목장도 영혼 구원이라는 목장 본연의 의무를 감당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저희 목장이 지금 후원하고 있는 미안마의 맹갑균 선교사님을 통한 하나님 나라 확장에도 더 큰 관심을 갖고, 더 많은 기도로, 또한 물질로 후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박종화 목자

믿음으로 엮어주신 울타리



하나님께서서는 저희 목장에 초신자 가정을 부르셔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고 믿음의 기초를 다져주고 계십니다. 저희 같은 연약한 지체들이 자주 모여 구원의 확신과 말씀에 기초한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걷게 하시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위로, 그리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있다는 것을 함께 확인하며 항상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 번은 저의 오래된 의문이 일시에 풀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 목원 네 가정이 어떤 연유에서 40대, 50대 초반의 나이임에도 거리낌 없이 스스로 교회에 나오게 되었는지 궁금하여 목장 모임에서 이를 주제로 같이 나누는 적이 있었는데, 네 가정 모두 공통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는 친형제나 자매, 친구들로 둘러



싸여 있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까운 분들이 오랫동안 지속해서 그분들의 구원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해주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따라서 모두 스스로는 자발적으로 교회를 나왔다고 말할 수 있었겠지만, 이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주변 분들의 기도 열매이었음을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중, 고등부 시절부터 하나님을 믿고, 같은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가끔은 믿음의 정체와 매너리즘, 내태함 등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원들이 한두 가정씩 늘어갈 때마다 정신을 번쩍 차리게 하시고, 새로 하나님을 믿게 된 그분들의 믿음생활을 지켜볼 때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을 실감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목장모임에서 예배의 중요성을 나누는 적이 있었는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주일 식당 봉사를 하게 되었을 때, 목원 중 한 자매가 혼자 와서 1부 예배를 먼저 드린 후, 다시 왕복 50마일이 넘는 거리인 집으로 돌아가 자녀들을 데리고 교회로 와서 본인은 봉사하고 자녀들은 예배드리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나도 그렇게 열과 성의를 다해서 예배에 참여할 수 있을지 그 자매를 통하여 나의 믿음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자매는 하얀 도화지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실 수 있도록 순수한 믿음의 바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소천하신 어머니의 임종도 못 지켜보았다는 괴로움을 잘 극복하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다니는 두 자녀를 위해 엄마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가정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목원 중 미국에 온 지 5년이나 되었지만, 아직 비즈니스도 못 잡고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형제에게 연락이와 같이 대화를 나누던 중, 자신의 미국생활 5년을 되돌아보면 시계를 다시 돌리고 싶을 정도로 후회되는 삶을 살아왔다는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형제님같이 수많은 어려움을 헤쳐 지금까지 온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해야 할 일이며, 하나님의 관심은 형제님이 좋은 비즈니스를 찾게 되어 생활이 윤택하게 되는 것보다도 형제님이 믿음으로 굳게 서는 것과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회복이 더욱 우선이라는 말을 해 주었는데 그 형제의 반응이 의외였습니다. 저를 만나기 며칠 전 목사님을 만났을 때에도 목사님께서 그 형제의 말을 다 듣고 난 후, 예수님을 영접했느냐는 질문을 불쑥 던지셨다고 하면서 본인이 현재 직면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목사님과 저를 통해 확연히 드러나게 된 시간이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준비해 온 QT 책자를 주며 저도 잘 지키지는 못하지만 매일 한 페이지씩 QT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권면하였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남짓 지난 후 그 형제는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되었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를 더해주시는 하나님을 같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긴 자율사역 기간이 끝나고 목장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하반기에는 저희 목장 식구들이 단단한 영의 양식을 스스로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사랑의 공동체로 감사와 기쁨을 같이 나누는 귀한 시간이 삶 속에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송옥영 목자

비올라 목자



대학교에 갓 입학했을 때의 일입니다. 친구가 오케스트라 동아리에 오디션을 보러 간다고 해서 구경을 갔습니다. 하지만 생긴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공대생 오케스트라인지라 악기도 몇 가지 없었고, 선배들은 현재 없는 악기를 배울 의향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환영이라고 광고를 했습니다. 음악을 좋아하던 저는 그 말에 솔깃해져 자원했고, 그렇게 비올라라는 악기와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늦깎이로 배우는 현악기는 너무나 생소했습니다. 악기에서는 흥가에서 문 여닫히는 듯한 괴기스러운 소리만 났고, 악기가 싸구려라서 그럴다고 아무리 변명을 해도 소음에 지친 주변 사람들은 저를 점점 멀리했습니다. 하지만 잘하고 싶은 욕심에 매일같이 연습했고, 그 결과 몇 달 후에는 합주 연습에 그리고 연말에는 연주회까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실력이 점점 느는 것도 재미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여러 사람이 함께 하나의 음악을 만들어간다는 것이 참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부터인가 비올라를 하는 것이 점점 재미가 없어졌습니다. 비올라는 아주 높지도 낮지도 않은 어중간한 음역의 악기입니다. 그래서인지 바이올린이나 첼로를 위해서는 수많은 곡이 쓰였지만, 비올라를 위한 곡은 정말 미비한 수준입니다. 합주할 때도 반주 역할만 많이 하고 주요 멜로디를 맡는 경우가 별로 없었습니다. 한 마디로 튀는 악기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겸손한 척해도 속으로는 은근히 주변의 인정을 받아야 삶의 보람을 느끼는 저의 성격과는 너무나 맞지 않는 악기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비올라의 역할과 중요성을 점점 알게 되었습니다. 현악기 사이에서 비올라는 바이올린과 첼로의 사이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관현악 음악을 들어보면 많은 경우 비올라 소리는 그다지 잘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올라가 빠진다면 어딘가 모르게 허전할 것입니다. 굳이 비유하자면 음식에서 무엇인가가 빠진 듯한 맛이 나는데 뭔지 잘 모르는 상황과 비슷하다고나 할까요? 비록 무시와 설움(?)을 받아오긴 했지만, 오케스트라에서 빠지면 안 되는 중요한 악기입니다. 음악 하시는 어떤 분께서 “가늘고 길게 가려면 비올라가 최고”라고 농담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크게 드러나 보일 기회는 거의 없지만, 필요로 하는 곳은 많이 있다는 뜻이겠지요.

제가 전에 속해 있던 여러 목장의 목자님들로부터 목자가 되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있는 힘껏 피해 다녔습니다. 목자가 되면 일이 많아서 힘들 것이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다른 사람들보다 신앙이 깊지도 않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몇 년을 도망다니다가 우여곡절 끝에 결국 목자가 되었고 한 목장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말하기 부끄럽지만 처음 몇 달간은 감사하는 마음

이 아니라 부담감에 몸부림을 치며 보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맡을 수 있는 직분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던 어느 날 문득 예전에 비올라에 대해 가졌던 생각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맞는 비유일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혹시 목자로서 혼자 튀는 악기가 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자는 목장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하고 신앙과 생활의 모든 면에서 다 잘해내야 한다고 믿었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 실망하고 힘들어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합니다. 목자의 역할이라는 것이 화려한 독주 악기가 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전체의 조화를 이루는 데 꼭 필요한 합주 악기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악기 연습을 게을리하면 안 되듯이 제 자신의 신앙도 계속해서 자라고 또 목장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목자로서의 모습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적어도 지금의 제가 담당할 수 있는 목자의 역할이란 목원들을 섬기고 받쳐주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목장이 한마음이 되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일을 하기에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가늘고 길게’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다짐을 해 봅니다.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는 로마서의 말씀처럼, 목장과 교회는 여러 면에서 오케스트라와 아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꼭 필요한 그런 악기, 그런 목자의 직분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종현 목자

한바퀴 돌리시고, 두바퀴 돌리셔서---



2007년, 처음 낯선 미국땅에 와서, 정말 좋은 목장을 만났습니다. 당시 모두 젊은 부부들이라 목장모임을 하면 새벽 1시, 2시는 기본이었고 아는 이 하나 없는 낯선 미국 땅에서, 목장 식구들은 정말 또 하나의 가족이었습니다. 한국에 되돌아간 일 년 반 동안에도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했던 그 시간을 많이 그리워했습니다. 어쩌다 목장 식구들이 한국에 잠시라도 방문 하면 반가운 마음이 어찌나 크던지, 아내는 서울에서 일에 찌든 제 인상이 목장 식구들 만났다고 그렇게 달라질 수 있느냐고 했습니다. 항상 긴장과 함께 많은 양의 업무를 빨리빨리 해결해야 하는 회사 문화로 인해, 제 신앙생활은 주일에배만 잘

드려도 다행이었고, 출퇴근 버스에서 옛날 목장에서 믿음 생활했던 때를 떠올리며 그리워했습니다.

그러던 중, 2010년 여름부터 산호세로 돌아오기 위해 이름 들으면 알 만한 규모 있는 회사에 아는 분을 통해 지원했습니다. 며칠에 걸친 비디오 인터뷰를 좋은 결과로 잘 마쳤고, 저를 추천해 주신 분과 소속 팀장님의 의견도 긍정적이어서 인사팀에서도 입사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절차인 CEO 사인에서 떨어졌습니다. 해외채용 대신 로컬에서 뽑으라는 CEO의 한마디에 그냥 떨어졌다가에 너무 어이가 없었고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미국에서의 믿음 생활이 너무 그립다고,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기도 후에 주시는 마음도 꼭 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좋은 기회에 다시 만나자는 인사팀의 메일을 받고 정말 머릿속이 하얗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러셨을까, 내가 문제인가? 뭐가 문제인가. 이 회사가 아니면 다른 방법도 없는데... 이 회사만큼 가능성 있는 곳도 없는데...' 하며 며칠을 보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 처음 주재원 때, 같이 일했던 매니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다른 회사에서 떨어진 소식을 들었다며 우리 회사는 신규 업체이지만, 어떨겠냐고, 저는 당연히 승낙하여 인터뷰 출장까지 마친 후 백여 명 되는 신규 업체에 입사했습니다. 물론, 떨어졌던 회사와는 비교가 안되게 작은 회사였지만 산호세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기쁨이고 감사였습니다. 정말 절망에서 감사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첫 회사에 떨어졌을 때, 제 미약한 믿음을 보며 아내가 말했습니다. "거절하신 것도 감사며 기도에 거절로 응답하신 것도 감사라고,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항상 좋은 것을 예비하신다고..." 그래서 떨어졌다는 통보를 받고 감사 헌금을 했습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냥 머리만 하얗게 될 뿐, 아무런 생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회사에 붙었을 때 절망에서 감사로 바뀐 그 순간을 결코 잊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주님의 계획을 다 알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들어간 회사는 1년 후, 꽤 좋은 조건으로 큰 회사에 합병되었고, 당시 받았던 스톡옵션은 지금의 목장 하우스인 저희 집을 마련하는 데 꼭 필요한 힘이 되었습니다.

둘째를 가져 만삭의 몸인 아내와 함께 산호세로 다시 돌아와 한 달 후 바로 아이를 출산하고 만 1년 되던 해, 대행 목자로 임명되어 분가해서 목장을 꾸리던 때 회사가 합병되고 집을 이리저리 알아보고 사고 고치고 여차여차 하니, 2012년의 끝에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해고당하지 않고 그냥 여기서 계속 있었다면 아마 지금쯤 평안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해고되어 이직하면서 이스라엘팀과의 협업 과제로 이스라엘에 두 달간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성탄절의 베들레헴, 새해 첫날의 예루살렘 등 예수님의 흔적을 모두 가슴으로 담아올 수 있었으며 믿음생활에 대한 갈급함과 그리움도 소중함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 제가 만약 첫 회사에 붙었으면 "거절하신 것에 감사"라는 말을 제 가슴속에 깊이 새길 수 있었을까요? 집을 사기 위해 알아볼 때, 큰 아이가 "오렌지 나무가 있는 집으로 이사 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신규 업체에서 받았던 주식도 없었다면 지금 목장 하우스로 잘 사용하고 있는 저희 오렌지 집도 마련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난 몇 년간 저에게 가정교회, 목장의 모습을 보여 주시고, 저를 한층 성숙시키시려 한 바퀴 돌리고 두 바퀴 돌려서 굴리신 후, 다시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것을 모르던 저는 절망만 하고, "거절하신 것도 감사"라는 말은 위로의 말로만 여긴 채, 혼자만 마음고생 했습니다. 주님의 계획 하심이 진행될 때마다 어린 마음에 힘들다고만 했었는데 이제는 다가오는 날엔 주님의 어떤 계획이 보여질지 궁금합니다. 혼란스러웠던 지난 여정이 끝나고 주님께서 계획하셨던 목자의 역할에 온전히 임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평우 목자

작은 것 하나도 계획하시는 하나님



저희 부부가 목자, 부목자로 순종을 결심한 것은 섬길 준비가 된 것도 아니고 믿음이 더 뛰어나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임마누엘 장로교회를 다닌 지 십여 년이 지났지만, 항상 받기만 하던 저희가 좀 더 성숙한 신앙생활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무엇인가 해야 한다고 느꼈고 또한 목자, 부목자로 모든 준비가 되기를 기다린다 해도 절대 완벽하게 준비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믿음도 부족했지만 단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 하나로 목장에서 분가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인도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목장을 분가했던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정말 좋은 목원들을 붙여 주셨고 시작함과 동시에 목원 가정들과 항상 함께 도와가면서 목장을 섬기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목장을 시작한 저희 부부에게는 목원들의 기도와 도움이 없는 목장을 이끌어 나가기가 정말 불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변화를 주셨습니다. 첫째로는 남편, 이인동 목자의 변화였습니다. 목자로 섬기기로 마음먹었지만, 평상시 살던 삶에서 벗어나 목자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하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변화가 한 번에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삶 가운데 작은 변화들이 하나씩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저희의 삶에 주님이 많은 것을 주셨지만 세상적으로 볼 때 더 많은 것을, 그리고 더 큰 것을 보던 남편은 평상시에 삶에 별다른 즐거움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목자의 삶을 시작하면서 성경을 더 가까이하고 목장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큰 변화는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행복하다는 말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남편의 변화를 보기 시작한 저는 준비되지 않은 자도 주님의 계획안에서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그렇게 믿음으로 변해가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아이들에게도 또 다른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작은 계획도 다 준비하시는 주님이라는 것과 변화는 나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갈 때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앞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계속 받기만 하던 신앙생활에서 더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첫걸음이 목장을 섬기는 것이었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많은 은혜와 변화를 허락하셨습니다. 처음 목자 가정을 시작할 때만 해도 저희가 목장을 이끌어야 한다는 마음이 있었지만 저희가 주는 것보다 오히려 받는 것이 더욱 더 많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주님을 통해, 목원들을 통해 그리고 우리 자신과 아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는지 목장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같이 부족하고 서투른 목자, 부목자를 위해 너무나 귀한 목원들을 허락하셨고 그 목원들을 통하여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에 하셨던 것보다 더 큰 것을 계획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윤성희 부목자(이인동 목장)

마리나 해변의 일몰

(The Sunset of Marina Beach)

해가 뜨지 않는 바다
찬란한 일몰은 은총이다

바다는 두근거리고
설레는 은빛 파도
마음은 출렁거린다

가득히 차오르는 그리움으로
마주보는 풍경부터 물들이는 분홍빛
하늘은 지친 등 뒤로 배경이 된다

성긴 구름 이리저리 하늘을 엮어서
흘어지는 빛 모아 바다에 드리우면
물로 밀려오는 옛 이야기

가라앉지 못해 해는 점점 커지고
번져가는 주홍빛 하늘까지 사무치는데
바라볼수록 부신 눈 끝내 감으면
수없이 반짝이는 초록별
감은 눈 안에 무리진다

해가 뜨지 않는 땅
찬란한 일몰의 바다는
오늘의 기도
내일의 응답이다

- 윤 혜 석



7월 4일, 감사했던 하루



예전에는 7월 4일이 오면 불꽃놀이를 보러 가거나 뭐 좀 특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었다. 이번 해에는 목장 식구들과 어디 가 볼까도 생각했지만, 공휴일에 멀리 갔다 돌아올 때는 늘 교통체증 때문에 고생했던 기억이 있기에 이번에는 가까운 공원에 가기로 했다. 프리몬트에는 토요일이나 공휴일이 되면 엘리자베스 파크에 많은 사람이 모여든다. 그래서 그쪽은 좀 가기 싫은 마음이 들어 그 반대쪽에 있는 좀 한가한 센트럴 파크로 정하고 한 두 주 전 목원들에게 알렸다. 혹시 다른 계획이 있는 분들은 안 오셔도 된다고 하고 나머지 분들은 오시기로 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하고” (막10:45)

드디어 7월 4일, 아침 7시 반에 자리를 잡으려고 일찍 갔다. 관 찰은 장소는 벌써 더 부지런한 사람들 차지가 되어있었다. 그 래도 주차장 아주 가까운 곳에 커다란 나무도 있고 경치도 좋 은 곳이 우릴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 목원들이 준비해온 텐트, 상들을 펴놓고 커피와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담화를 나누었다. 차로 5분이면 올 수 있는 가까운 곳에 좋은 파크가 있는데도… 몇 년 만에 이곳에 왔는가? 푸른 잔디가 넓적넓적 펼쳐져 있 고 나무도 시원한 그늘을 주며 사람들에게 와서 쉬라고 자연 은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요나 생각이 났다. 하나님이 박영쿨을 예비하셔서 요나 의 머리에 그늘이 지게 하여 시원케 하신 것으로 크게 기뻐하 더니 벌레를 예비하사 박영쿨을 갉아먹게 하여 시들자 뜨거위 스스로 죽기를 구한 요나 말이다.

형제들은 차콜에 불을 붙이고 고기를 굽기 시작했다. 자매들은 저마다 가져온 반찬을 상위에 내놓고 준비하며 마냥 즐거워했 다. 상추, 오이, 깻잎 등을 유기능으로 먹게 되는 기쁨도 있었 다. 이렇게 밖으로 나오길 잘했다고 하며 우리는 점심시간이 미처 되기도 전 점심을 맛있게 먹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풍 성한 식탁과 함께 우리의 마음도 넓어지며 하하 호호 웃음과 함께 우리의 이야기도 꽃을 피웠다.

날씨는 더웠지만, 그늘에 있으니 정말 시원했다. 작은 텐트 안

에 들어가서 잠시 낮잠도 자고 옆에 우리처럼 놀러 온 각국 인종들을 둘러보니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다.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방언 주님 앞에 찬양하리.” 수요일에 때 찬양하던 찬양이 생각났다. 해가 높 아지더니 점점 서쪽으로 향했다. 약한 불에 올려놓았던 옥수 수와 감자도 다 익었다. 지금 집에 가면 더울 것 같기에 아예 저녁도 먹고 좀 더 있다가 가기로 했다. 아까 먹고 남은 재료 들을 볶아 볶음밥을 만들고 한 집사님이 갖고 온 해물 부침개 재료로 즉석 해물 부침개를 만들어 주셔서 멋진 식단으로 저녁을 먹을 수 있었다. 더 어두워지기 전에 좀 걸기로 했다. 자 매들이 먼저 돌고 형제들이 돌았다. 뜨겁던 열기가 식더니 점 점 어둡어둡해졌다. 짐을 정리하는데 폭죽 터지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저 멀리에서 불꽃놀이 하는 것이 아주 작게 보 였다. 모기가 달려들기 시작하자, 우리는 다음에 한 번 더 방 학 중 이런 시간을 갖기로 하고 각자의 보금자리를 향해 떠 났다. 하루를 자연 안에서 잘 쉴 수 있었음에 감사드리며…

오랜만에 목원들과 야외로 나와서 지낼 수 있었던 것에 감사 를 드린다. 목자로 섬기는 것은 주님을 조금이나마 닮기 위한 걸음이라고 생각된다.

때로는 어렵고 힘들기도 하지만 주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 하심에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갈 때 문제를 헤쳐나갈 힘 과 능력을 주실 것을 믿는다. -김백미 부목자 (김성국 목장)

7월 13일 토요일



오랫만이다. 여름 방학 시작한 후로 이런저런 일정으로 바쁘던 목장 식구들이 다 함께 모이는 것도 오랫동안, 야외에서 함께 바베큐하는 것도 오랫동안, 셋째 주하가 태어난 후로 우리 가족이 다 같이 나들이하는 것도 오랫동안이다. 아이들이 들떠있다. 좋다. 참 좋다. 따사로운 햇살이 좋고, 선선한 바람이 좋고, 맘껏 뛰어노는 아이들 행복한 웃음이 좋고, 언제 만나도 푸근한 우리 목장 식구들이 좋다. 갓난 아이와 씨름하느라 조금쯤 멍쳐 있던 몸과 마음이 어느새 스르르 풀어진다.

삼겹살 냄새가 널리 퍼를 끼치지 않을 만큼 한갓진 곳에 자리를 잡고 보니, 저만치 떨어진 곳에 또 한국분들 모임이 있는 것이 보인다. 정영씨네 모임이다. 정영씨와는 그 맥이 처음 이곳에 오셨을 때 몇 번 만나 뵈었던 사이인데, 6년 만에 지난주 교회 놀이터에서 우연히 마주쳐서 둘 다 깜짝 놀랐었다. “이 교회가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냥 한 번 와 봤어요.” 하셨다. 독실한 불교 신자이지만, 기독교의 가르침에 대해 한 번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드셨다고. 이끄는 이 없이 약속도 없이 첫발을 디딘 교회에서 우연히 처음 마주친 사람이 우리 목장의 현아 언니였고, 두 분이 이야기 나누는 것을 또 내가 우연히 마주치게 된 것. 오는 토요일 바베큐 모임 초대에 흔쾌히 응한 정영씨가 며칠 뒤 다시 전화를 주셨다. 토요일 모임 시간과 장소를 정영씨께 알려 드리려고 이메일을 쓰려던 참이었다. 정말 죄송하게 되었는데 잊고 있던 선약이 토요일에 있다고, 토요일 아침 11시에 Foothills Park에서 바베큐하기로 한 선약이라고.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다. 우연도 이쯤 되면 무섭다. 이런 무서운 우연을 우연으로 믿을 수 있는 강한 믿음이 내게는 없다. 자아, 하고 침을 꿀꺽 삼키고 손을 비비면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까, 흥미진진하게 다음 장면을 기대하는 어린아이의 심정이 된다.

맛있는 냄새가 난다. 숯불 냄새와 기름 냄새가 오묘하게 뒤섞인, 사뭇 조화로운 냄새다. 이번 여름 동안 본의 아니게 숯불 삼겹살 구이법을 연마하게 되셨다는 상종 형제님께서 실력을 발휘하고 계신 것이 틀림없다. 형제님네 둘째 유성이는 우리 목장에서 길갈의 기념비와 같은 아이이다. 4년여 전, 예정일보다 석 달이나 먼저 만나게 되었던 유성이는 한 손안에 폭 싸일 만큼 작았다. 가냘픈 아기새 같던 그 아이를 NICU에 떼어 놓으며, 엄마 아빠의 눈에도 우리 모두의 마음에도 닦아도 닦아도 끝없이 차오르는 물기가 서렸었다. 생명의 경계를 넘나드는 오랜 기간의 사투를 유성이는 곳곳하게 이겨냈고, 아이와 함께 우리 모두는 큰 강을 건넜다. 그 누구라도 넘기 어려울 만큼, 두려움과 불안과 의심이 거대한 벽을 이루며 삼킬 듯 달려

드는 그 강에 아이 엄마 선영 언니가 믿음으로 발을 먼저 담그셨고, 하나님은 어김없이 사랑으로 강물을 가르셨으며, 우리 모두는 그 뒤를 따라 강을 건너 이 일에 증인이 되었다. 그리고 건강하고 사랑스럽게 자란 유성이를 볼 때마다 그 아이 안에 지금도 뚜렷이 나타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을 벗게 되고, 그 사랑에 잠잠히 모든 것을 맡기게 되는 것이다.

여느 때 모임처럼 먹는 것도 이야기하는 것도 하염없이 흘러서 어느새 늦은 오후의 졸린 기운과 석이려는 찰나, 요즈음 한창 아이들과 캠핑다니는 재미에 폭 빠지신 종현 형제님께서 원가를 주섬주섬 꺼내기 시작하셨다.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활쏘기 세트, 추억의 오재미, bocce ball, golf ladder, 피냐타까지. 대부분 어떻게 하면 야외에서 아이들이 신나게 놀 수 있을까 궁리 끝에 시간과 정성을 들여 손수 만드신 것들이다. 형제님답다. 놀이도구 하나하나마다 가족을 향한 깊은 사랑과 가족을 넘어서는 더 넓은 사랑이 오롯이 담겨있다. 서로 관심은 있지만, 함께 몽칠 구심점이 없는 듯했던 두 모임의 아이들이 피냐타 놀이를 하며 자연스럽게 어우러진다. 그런 쪽으로는 늘 아이들보다 한 박자 굵든 어른들도 서로 인사를 하며 이야기문을 열기 시작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어떻게 알고 느낄 수 있을까, 현아 언니와 생생한 대화를 이어가던 정영씨가 다음 목장모임에 와 보기로 하셨다. 새가족부를 통해 소개받은 택형, 선혜씨네 가정도 다음 모임 때 만나 뵈 예정이니 목장에 신선한 새 바람이 불겠다. 정영씨 아들 선우와 우리 집 둘째 수안이가 나이가 같아서 play date 약속도 잡혔다. 동생 주하가 엄마 뱃속에 있는 동안 엄마의 햇빛 알려지가 너무 심해서 작년 여름 내내 집에만 갇혀 있다시피 했던 수안이에게는 좋은 선물이 되겠고, 그런 수안이가 안쓰러워 또래 친구들과의 play date 기회를 놓고 구하던 엄마에게는 기도응답이 되었다. 기도응답, 소리를 들으면 정영씨는 또, 특유의 귀엽고 시원한 웃음을 날리며 굉장히 곤란하다는 표정을 지으실 테지만.

-서혜진 부목자(이원재 목장)

6월 7일, 목장 이야기



“어디쯤이에요? 빨리 들어오세요.”

낮을 달구던 열기가 서서히 선선한 바람으로 바뀔 무렵 저는 급한 마음에 교통체증으로 속수무책 차에 갇혀 있는 남편, 이상욱 목자에게 전화를 겁니다. 오늘은 금요일 목장예배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그가 어쩔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다 그쳐봅니다.

샌프란시스코와 산호세 직장에서 트래픽을 뚫고 오시는 목원들, 목장모임을 위해 일찍 퇴근하고 오시는 목원들, 아이들의 액티비티를 끝내자마자 오시는 목원들, 일주일 동안 지치고 우울했던 목원들, 어린아이의 육아로 금요일만은 쉬고 싶었지만, 자리를 박차고 오신 목원들. 모두가 각자의 삶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숨 가쁘게 지내다 일주일 만에 만나 주일의 말씀들을 묵상하고, 서로의 삶을 나누며 위로와 기도가 이루어지는 이 일이, 이곳이 얼마나 은혜롭고 감사한 일인지. 간단한 다과를 준비하는 저희 목장은 다과나 일식 삼찬 중 오픈하는 가정

이 편한 대로 하고 있습니다. 내내 구절구절 생각나는 찬양을 흥얼거립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거의 시작 시간에 맞춰 온 남편은 조데이빗 목사님께서 이미 일로 보내주신 목장 진행안을 한번 훑어봅니다. ‘넉넉히 퇴근해서 더 열심히 생각해보고 기도해봐야 했을 텐데...’라고 ‘제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의 티끌은 아주 잘 보는’ 부족한 제가 한마디 하려는 순간, 그 자리에 계시며, 이끄시는 이는 주님이시라고 배짱을 피우며 말하는 남편이 입지만은 않은 걸 보니 이것 또한 주님의 은혜입니다.

시간이 다가옴에 따라 한가정 한가정 모여들고 오자마자 쫘르 쫘르 위층으로 올라간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목원들의 일주일간



있었던 이야기로 집안이 들썩들썩합니다. 그리고 조금 뒤 예배를 시작하려는 남편의 어색한 헛기침에 모두가 바로 앉아 목장예배를 준비하고 아래와 같은 기도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모든 예배는 오직 주님께서 받으시기를… 나누는 말 가운데 어떠한 사탄의 장난도 일어나지 않기를… 오직 주님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기를…”

목장진행안대로 지난 주일 설교 말씀을 가지고 더 깊은 묵상과 교제에 들어갑니다. 때론 조금은 난해한 질문에 깊은 토론도 이루어지기도 하고, 때론 질문에 비친 자신의 삶을 토해 내기도 하고, 때론 힘겨운 삶과 질문이 엉켜서 불안과 투정을 부려보기도 하고, 때론 재미있으신 목원님의 재치있는 대답으로 한바탕 웃기도 합니다. 참으로 신기한 일은 질문과 상관없는 답들이 나오고 그 답을 통해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심을 느낍니다. 그 모든 질문에 저희는 맞는 답을 잘 알지 못합니다. 저희는 그저 답하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가끔은 너무나 모자란 목자와 부목자가 아닐까 생각하지만, 이 모든 것이 오직 주님께서 일하심을, 이곳에 계심을, 이 모든 대화를 다 듣고 계심을, 그렇게 살아계심을, 보여주심을 경험하며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니”(히4:12)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있으니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어느덧 10시가 훌쩍 넘어가고 놀던 아이 중 한두 명이 내려와

엄마 무릎에서 잠을 청하고, 커피를 다시 한 번 내리고 허기를 달랠 간식거리를 내옵니다.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는 차례. 일상의 기도제목부터 간절한 기도제목까지 고통과 아픔 가운데 내놓는 기도제목들을 들 때마다 예전에 책을 읽다가 성경귀퉁이에 적어 놓은 이 말이 생각납니다. “상한 마음을 통하지 않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단 말인가!”(오스왈드 와일드) 그저 저희는 기도할 뿐입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롬8:18) 라는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기도제목을 적기 위해 필기구를 한아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모두 목사님께서 나눠 주신 조그만 포스트잇에 각자의 기도 제목을 적습니다. 한사람씩 다른 사람 기도 제목을 갖고 일주일간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이것들은 후에 기도가 이루어졌는지 체크업 하고 일 년이 되면 일 년간의 기도 포스트잇을 가족별로 만들어 선물할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눈으로 볼 수 있는 좋은 선물일 거라는 생각에 벌써 입가에 웃음이 맴돕니다.

마침기도로 금요일 목장예배가 끝이 나지만 목원들은 아직 못 다 한 이야기가 한창입니다. 취침시간이 훨씬 지난 아이들이 땀이 흥건해서는 꿈아떨어집니다. 조금 큰 아이들은 아직도 무슨 재미난 것이 많은지 소곤소곤 거립니다. 귀뚜라미의 우는 소리가 적적한 여름밤을 달래고…. 이렇게 우리는 주 안에서 한가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영전 부목자(이상욱 목장)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7월 29일 1년간의 미국 연수 생활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왔다. 목장 식구들이 샌프란시스코 공항까지 환송을 나와 주었고 뜨거운 포옹을 하면서 아쉬운 작별을 나누었다. 큰 힘이 될 것 같다는 말은 습관처럼 하는 말이 아니었다. 목장 식구들의 뜨거운 사랑과 관심, 그리고 주님의 은혜는 서울로 향하는 우리 가족에게 큰 힘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어려운 일이 있거나 깊은 고민의 순간에도 후퇴할 수 없는 버팀목이 될 것 같았다. 목장 식구들과 나누는 사랑은 예수님은 멀리 있는 절대적 존재가 아니라 우리 이웃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으며 사랑과 봉사 그리고 주님을 믿는 신실한 마음이 있다면 누구나 예수님을 닮을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 주었다. 사랑은 나눌수록 커지며 많이 가질 때 나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 또 매주 금요일에 있었던 ‘목장’은 앞으로도 항상 주님을 섬기며 살아야 한다는 명제를 생각하게 해주었다.

이렇게 주님을 가슴속에 모시게 된 결정적 계기는 전적으로 임마누엘 교회와 목장 식구들 때문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동안 주님의 부름을 맞이하게 될 계기는 적지 않았다. 지난 2007년에는 이스라엘, 이집트, 요르단으로 성지순례를 다녀오기도 할 정도로 주님을 가까이 볼 기회가 있었다. 이때 물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의 기적의 역사를 보기도 했었다. 당시 신앙생활은 하지 않았지만 ‘종교’에 대한 관심으로 성지순례를 다녀왔었다. 예수 탄생 교회에서부터 비아 돌로로사, 골고다 언덕, 예수 무덤교회까지 직접 보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곳에서 기도하기도 했었다. 오병이어

교회, 베데스다 연못 등 예수님께서 이적을 일으킨 곳도 가보았으며 모세가 십계를 받

은 시내산 그리고 고난의 상징 ‘광야’까지 직접 체험한 그의 역사는 정말 놀라운 것이었다. 이 후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마치 역사서를 읽는 듯한 기분이 들고 있으며 성경 속의 예수님의 말씀과 실천은 마치 사진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현저 경험은 매우 생생했다. 당시 성지순례에 동행한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은 우리 부부에게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할 것을 수차례 권했었다. 이해했지만 마음으로 다가오지는 못했다.

하지만 임마누엘 교회와 목장에서 느낀 점은 ‘성지’는 멀리 이스라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었으며 예수님 말씀은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천’ 속에 존재한다는 것이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웃 사랑과 나눔 활동, 절제된 생활 그리고 교회를 집처럼 생각하며 항상 예수님을 섬기는 삶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목장 식구들을 보면서 크게 감동을 하였다. 특히 주님께서 우리를 나락으로 떨어져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일 때 부른 것이 아니라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에 부르셨으며 임마누엘 교회와 목장 안에서 살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은 우리 가족에게 준 ‘은혜’와도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것은 서울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고 주님을 항상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고 어려울 때나



기쁨 떠나 나누고 살라는 은혜일 것이다. 이제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한다. 분명 지난 1년 미국 연수 생활 이전과 이후는 다른 삶이 됐으며 임마누엘 교회와 목장을 경험한 이전과 이후, 느끼는 '사랑'과 '나눔'의 의미는 다르다. 하지만 임마누엘 교회와 목장에서 느낀 것과 같이 서울에서도 실천하려 한다. 서울에서의 새 삶이 기대된다. 아멘. -손재권(김범진 목장)



당신 같은 사람이

믿는 예수라면...

국가가 운영하는 무료 결핵 요양소에 K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요양소에 온 지 1년이 다 됐지만, 그 누구와도 이야기를 나누는 법이 없었다. 그가 살아온 삶의 여정이 아무도 믿고 대화를 할 상대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준 듯했다. 매일 침대에 누워 창 밖을 내다보며 침울한 표정을 짓고 있는 그에게 어느 날 손님이 찾아왔다. 근처 교회의 집사였다.

“형제님! 예수를 믿으시죠. 평안과 기쁨이 옵니다.”, “예수? 웃기지 마쇼. 난 피곤하니 돌아가시오.” 집사는 그의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수를 믿으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 마음은 너무 굳어 있었다. 집사는 결국 포기를 하고 문을 나서려 했다. 그때였다. K가 집사를 불렀다. “이봐요. 아주 추워요. 당신이 입고 있는 옷을 내게 줄 수 있나요? 그걸로 몸을 좀 덮어줘요.” 집사는 잠시 당황했다. 그러나 곧 예수님을 생각하고 자기 옷을 벗어 K의 몸을 덮어주었다. 그리고 조용히 방을 나서려 했다.

그때 다시 K가 그를 불렀다. “이봐요. 당신이 갖고 있는 성경책으로 내 머리를 고여 줘요. 배개가 너무 낡군요.” 집사는 그 말대로 한 후 다시 방을 나서려 했다. 다시 K가 불렀다. “이봐요. 너무 덥군요. 이제 옷을 다시 치워줘요.” 집사는 K의 몸을 덮은 옷을 건어 옷걸이에 걸고 발길을 돌렸다.

“이봐요.” 다시 K가 불렀다. 집사는 드디어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치솟았다. 몸을 핵 돌려 한마디 하려던 집사는 그만 놀라고 말았다. K의 말 때문이었다. “당신 같은 사람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한번 믿어 보겠소.”

-이규학 지음, 전도자 핸드북 중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순종 배우기



장로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한 2005년도부터 우리 가족은 목장에 출석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지 벌써 25년 정도 되었지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긴 것은 사실 이 무렵이었습니다. 처음 목장을 소개받고 출석할 때는 참 좋았습니다. 세상 속에서만 모임을 가져 보았던 저는 격이 없이 진솔된 대화를 나누고, 말씀도 읽으면서 신앙에 관한 얘기들을 나누는 모습이 신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모임의 모습이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열심히 목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도 목자가 되어 섬겨야겠다' 라는 다짐도 했었으며 예비 목자 세미나도 들었습니다. 가정예배도 열심히 드렸고, 나름 '이 정도면 믿음 생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야' 라고 어리석은 정도의 교만한 생각을 하던 찰나, 저는 사탄의 공격을 받고 순식간에 넘어지면서 목장에 분란을 일으켰습니다.

교만이 싹트기 시작하면서 저는 어느 날인가부터 정죄하는 사람, 판단하는 사람이 되어 목장 제도에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비 목자를 세우는 방식이 싫었고, 부담스러워도 말으면 은혜가 된다는 논리도 억지 같았습니다. 분가의 방식, 분가시 일어나는 잡음 등, 목장에 관해 보이는 모습과 들리는 소리는 부정적인 것만 남게 되고 결국 분노한 채 목장을 떠나 버렸습니다. 저의 비뚤어진 눈으로 본 목장 제도에 관해 저의 판단과 행동을 합리화하기에 바빴습니다. 하지만 목장을 떠난 저는 결코 신앙이 성장하지 못했으며, 단 한 명의 잃어버린 영혼도 주님께 인도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요란스럽게 목장을 떠났지만, 목장 식구들은 한결같이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오랜 기간 섬겨주셨습니다. 제 아내를 목장 식구들과 잦은 만남을 유지하였고 가끔 목장 행사가 있을 때 잊지 않고 초대해 주시고, 저희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제 아내가 기도를 부탁했고 그 때 마다 주시곤 했습니다. 그럴수록 저의 비뚤어진 마음은 더 꼬여서 그분들의 사랑과 섬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사춘기를 심하게 겪고 있는 빛나간 청소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도 알고 사랑도 알겠지만, 그냥 싫은 것 있죠... 참 악한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요즘 제 아이가 그런 행동을 할 때 보면 제 자신을 보는 것 같아 몹시 안타까우면서 한편 이해가 가곤 합니다.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요.

세월이 흐른 어느 날, 저희 부부가 모두 독감으로 인해 많이 아플 때였습니다. 목장 식구들이 번갈아가며 음식을 해서 가져다주었습니다. 음식을 주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듣고 저는 그냥 무너졌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내가 이분들에게 정말 정말 잘못했다' 는 생각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저의 어리석음과 비뚤어진 자존심과 자격지심을 모두 보여주시면서 이제 그만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목자님을 비롯한 목장식구 모든 분께 정식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오히려 위로해 주시는 모든 분의 넓고 큰 사랑을 보면서 저는 목장이 왜 존재하는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목장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곳이라고 믿습니



다. 우리 모두 불완전한 존재이고, 어쩌면 불완전한 제도와 미숙한 운영이 있을 수도 있고 기복신앙 같은 기도제목이 넘칠 수도 있고, 또 잃어버린 영혼을 인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목장에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위하는 마음이 있고, 예수님의 순종을 실천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순종만 배울 수 있다면, 목장은 그 기능을 다 하기도 넘친다고 믿습니다.

또 세월이 흘러 저희 부부는 현재 새로운 목장에 속해 있습니다. 목장에 속해 있다는 것이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웃고 울고, 또 함께 섬길 수 있는 목장 식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 아내는 하나님 앞에 참 의리있는 사람입니다. 한번 주님께 순종하겠다고 마음먹은 오래전의 어느 날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거기서 벗어난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진작에 그런 믿음을 제가 가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으면서도, 아직도 저의 신앙은 갈팡질팡함을 고백합니다. 그런 저를 보면서 제 아내는 농담으로 제가 신앙의 조울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함께 웃고 지나가지만, 사실은 너무나 맞는 말이어서 속으로는 불안합니다. 주님께서 제가 빛나가지 않게 꼭 붙들어주시기를 오늘도 기도하며 매일매일이 순종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은 (구명관 목장)

It is always too soon
to give up on God.

하나님께 위대한 일을 기대하면 위대한 일을 경험하게 된다. 응답이 이뤄질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범하는 커다란 잘못은 끈질기게 기도하지 않는 것이다. 그들은 인내하며 기도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바라고 있다면 그것을 얻을 때까지 기도해야 한다. 나는 여러 차례 낙심하기도 했지만 언제나 하나님을 소망하고 확신했다. 그분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는 법이 없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사55:11).

고아의 아버지라 불리는 조지 물러는 매일 5명의 친구의 회심을 위해 기도하였다. 몇 달이 지나 한 친구가 주님을 믿게 되었고 십 년이 지나 두 친구가, 25년이 지나 또 한 친구가 주님께로 돌아왔다. 그는 마지막 남은 친구를 위하여 죽는 날까지 계속 52년간을 기도하였고 결국 다섯 번째 친구는 조지 물러의 장례식 바로 직후 주를 믿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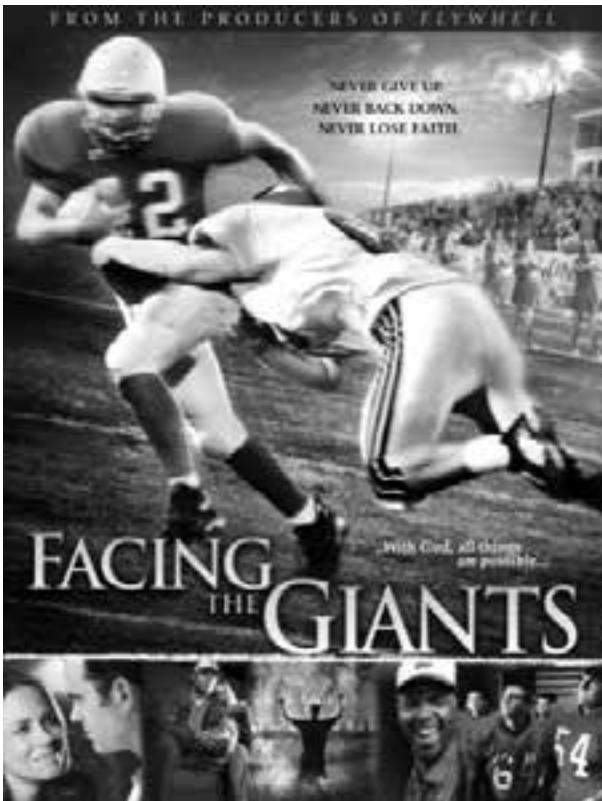
- '조지 물러의 기도' 중에서



Facing the Giants 믿음의 승부

삶의 어려운 순간이 다가올 때,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들이 괴롭힐 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을까? 여기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리는 믿음의 경주라면 그 승부를 위해서 어떤 믿음을 지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한 영화가 있다.

감독: 알렉스 켄트릭 (2006년 제작)



작은 시골 마을에 위치한 샤일로 기독교학교, 주인공 테일러 코치는 만년 꼴찌를 기록하고 있는데다 뭘 해도 안 된다는 패배의식에 잡혀 있는 미식축구팀 '이글스'를 맡고 있다. 그나마 실력이 있는 선수들은 새 학년이 되면 상대 팀으로 전학을 가버리기 일쑤고, 계속 되는 패배의 책임을 물어 테일러 코치는 해임위기에까지 처하게 된다. 설상가상으로 그의 아내는 수년째 아기를 갖기를 원하지만, 불임 통보가 기다리고 있고 낡은 집과 수시로 멈추는 고물차는 삶의 의욕마저 잃게 만든다. 어딜 둘러봐도 힘든 상황... 벼랑 끝에 선 테일러 코치는 성경을 읽으며 '두려움과 실패라는 거인'을 물리칠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린다. 그리고 고백한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러한 간절한 고백을 통해 테일러 코치에게 새로운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고, 지도 방식에도 변화가 생기게 된다. 오직 개인의 성공과 명예를 위해 미식축구를 하는 학생들에게 팀의 목적을 '세상적 우승'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호소한다. 그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승부'를 제안한다. 팀원들에게 "우리가 이겨도 주님께 찬양하고 우리가 져도 주님을 찬양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단호히 말한다.

이 영화의 터닝포인트가 되는 명장면! 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선수지만 매 경기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상대 팀을 이길 수 없을 거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



“여호와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시편 18:2)

던 주장 ‘브락’ 테일러 코치는 브락에게 동료 선수를 등에 올린 채 무릎을 닿지 않고 오직 두 손과 발로 30야드를 이동할 것을 지시한다. 그리고 더 갈 수 있는 상황에서도 포기할까 봐 눈을 가린다. 브락이 힘들어서 포기하려고 할 때마다 “Keep going!! Keep going!”을 목이 터지라 외치는 테일러 코치! 브락은 약속한 대로 그야말로 죽을 힘을 다해 포기하지 않는다. 눈가리개를 풀어보니 80kg을 짊어지고 END ZONE인 80야드까지 와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그때까지 반신반의하던 선수들도 서서히 믿음의 눈을 뜨게 되고, ‘이기든 지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다짐 속에서 최선을 다해 훈련하게 된다. 결국, 매일 지기만 했던 시합을 승리로 장식하고 연승행진을 이어가며 만년 꼴찌 팀에서 플레이오프 진출이라는 기적을 만들어 낸다.

또 한 명의 중요 인물인 데이빗! 작은 체구와 허약한 체력을 가져 만년 후보선수였던 데이빗은 마지막 결승전에서 부상당한 동료로 대신해 마지막 키커로 출전하게 된다. 경기종료 2초를 남기고 꼭 51야드를 차야 역전승을 할 수 있는 상황. 자신이 가장 길게 찾던 길이는 39야드였기에 데이빗 자신도 절대 51야드를 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테일러 코치는 주님을 의지하고 의심하지 않는 믿음으로 볼을 차라고 주문한다. 때마침 바람이 불어오고 온 힘을 다해 찬 볼은 51야드를 넘기는 기적을 보여주고 ‘이글스팀’은 챔피언에 이르게 된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보여주시기 위해 작고 약하기만 했던 데이빗을 가장 중요한 순간에 사용하신 것이다.

이 영화는 조지아 주 시골 마을 알바니아에 위치한 셔우드 교회 의 목회자와 500여 명의 교인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소명으로 제작에 헌신하여 기적적으로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고 한다. 감독이자 주연인 알렉스 캔드릭* 목사는 “이 모든 것은 작은 것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인도 하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고백하고 있다.

우리가 누구이든, 어디에 살든,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과 함께라면 불가능한 것은 없음을, 눈앞의 환경과 한계만을 바라볼 땐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다면 불가능이 없음을 이 영화는 보여주고 있다. 멀고 어렵다고만 느껴지는 믿음의 경주. 주님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통해서도 큰일을 행하시는 구주이심을 이 영화를 통해 느낄 수 있을 것이다.

- 이정열

* 편집자 주

알렉스 캔드릭 목사는 사랑과 희망에 관한 기독교적 가치관을 전파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 사역을 진행하고 있다. 2003년 셔우드픽처스를 설립, 영화를 제작하고 있으며, < Facing the Giants > 는 ‘2007년의 가장 놀라운 흥행작’이라는 찬사를 들으며 기독교계와 일반 평단 양쪽에서 호평을 받았고, < Fireproof > 는 2008년 미국 최고의 기독교 영화로 선정되었다. -네이버 영화정보

목장에서 나누는 영양만점 레시피

Q. 다음의 음식은 무엇일까요?

웰빙시대, 특히 더운 날씨에 더욱 적합한 메뉴. 싸서 먹는 음식이라 평소 다른 음식을 나눌 때보다 목장 친교 시간이 길 수밖에 없기에 목장에 새가족이 오셨을 때나 자율사역 기간 중 시간에 구애 없이 자연스럽게 친교 시간을 가질 때 더욱 좋은 메뉴. 기존의 식구들 식성은 이미 알고 있지만 새 가족의 취향을 몰라 메뉴가 고민될 때 입맛대로 골라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메뉴. 요리에 자신이 없으신 분들도 특별히 손맛을 내야 하는 부담감을 덜 수 있어서 좋은 메뉴.

정답은 모두 잘 알고 계시는 **월남쌈**입니다. 제가 강력 추천하는 목장 레시피입니다.

.....

*집집마다 재료는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많이 좋아하시는 재료로는 숙주, 양상추, 쌀국수, 고기, 새우나 맛살, 고추 (실란트로), 오이, 파프리카, 아보카도입니다. 원조 월남쌈은 돼지고기를 사용하지만 저는 불고기용 소고기를 사용합니다. 고기는 하루 전 날 불고기 양념으로 재워 두시면 됩니다. 혹시 집에 고기가 없거나 고기를 원하지 않으시면 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아이들을 위해서 치즈를 준비한 후 이 모든 재료를 가늘게 채 썰어 큰 접시에 색깔 좋게 담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rice paper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소스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세 가지만 2인분 기준으로 소개하겠습니다.

1. 피쉬소스: 파인애플 통조림 국물(4스푼), 피쉬소스 (2스푼), 라임즙 (2스푼), 다진 고추 (맵기를 조절해서)
2. 땅콩소스: 파인애플 국물(4스푼), 땅콩버터(2스푼), 진간장(2스푼), 케첩(1스푼) 머스타드(약간), 설탕(약간)
3. 핫소스: 스리라차 핫 칠리소스 Sriracha Hot Chili Sauce(4스푼), 스위트 칠리소스 Sweet Chili Sauce (4스푼)

rice paper를 미지근한 물에 잠깐 담갔다 빼신 후 큰 앞접시에 잘 펼치시고 원하시는 재료들을 넣은 후 에그롤처럼 말아서 드시면 됩니다. 소스는 취향대로 재료와 함께 넣으셔도 좋고 따로 찍어 드셔도 좋습니다.

.....

‘월남쌈’ 하면 저에게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10여 년 전 목원으로 있을 때 저희 가정을 섬겨 주셨던 부목자님입니다. 저는 그 때 목장에서 처음 월남쌈을 먹게 되었는데 싱싱한 각종 채소와 여러 종류의 속 재료를 마음대로 골라 먹으니 얼마나 맛있던지 정신 없이 먹었습니다. 저의 배가 어느 정도 부르니까 그제야 제 눈에 제대로 하나 싸서 드셔 보지도 못하시고 목원들 마음 편안히 먹으라고 어린아이들을 돌봐 주시며 계속 종종걸음으로 재료들을 채워 놓으셨던 부목자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미성숙하고 받는 것에 익숙해 있었는지... 지금도 그때 저의 모습을 생각하면 얼굴이 뜨거워집니다.

그 목자님과 부목자님의 기다림과 섬김이 있으셨기에 부족하지만 지금 저희 부부가 목장을 섬기는 목자 가정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10여 년이 지난 지금이지만 그때 못했던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저희 부부를 성장할 수 있도록 묵묵히 기다려 주시고 품어 주신 목자님, 부목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한진희 부목자(한광선 목장)



나의 찬양

복음성가 ‘날 세우시네(You Raise Me Up)’를 들을 때면 저와 항상 동행하시는 주님을 다시금 생각하며 저를 항상 일으켜 주시고 끊임없이 위로해 주시는 주님께 매번 감사함을 느끼게 해주십니다. 이 곡은 내가 아닌 주님 앞에 붙들린 삶을 살아갈 때 나의 삶을 주님이 세우신다는 내용의 CCM입니다.

이 곡은 노르웨이 출신 시크릿 가든의 Rolf Lovland가 아일랜드의 민요를 편곡하고 소설가인 Brendan Graham에게 작사를 부탁하여 2002년에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Graham의 소설 ‘The Whitest Flower’(1998년 작 19세기 아일랜드의 대기근을 배경으로 역경과 부조리에 대해 싸우는 한 여인의 삶을 그린 소설)를 읽고 영감을 받아 이 곡을 쓴 것으로 추측되고 있는데 2004년 미국에서 ‘Song of the Year’를 포함, 가스펠 뮤직 어워드에 4번이나 지명되었고, 기독교 단체 셀라에 나온 ‘You Raise Me Up’ 버전은 빌보드지 크리스천 차

트에서 1위를 하였던 CCM입니다.

원곡 가사 중,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에서 반복되는 ‘You’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정확한 명시적 표현은 없지만, 이 노래를 좋아하는 기독교인들은 가사의 ‘You’를 ‘주님’으로 간주하였습니다. 그 후 이 곡은 전 세계인들로부터 꾸준한 인기를 얻고 ‘Contemporary Hymn(복음 성가)’으로 “나의 영혼 연약하여 지치고 근심 속에 내 마음 놀릴 때 주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길 잠잠하게 나 기다립니다. 날 세우사 저 산에 우뚝 서리 풍랑 위를 나 견게 하시리 주님 품에 나 안기어 있으니 이전보다 더 강하게 되리.”로 번역되어 많은 교회에서 자주 불러지는 찬양곡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곡을 처음 접한 것은 2009년 가을쯤 새로운 커리어에 도전하게 되어 낯선 삶에 치저 힘들 때였습니다. 아마도 제 인생 통틀어 가장 어려운 시기로 실의와 낙망에 빠져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여러 가지 사건과 현실의 문제가 한꺼번에 몰려 왔던 것입니다. 전혀 예상치 않았던 안 좋은 일들과 해결 불가능한 문제들이 계속 밀려올 때 그동안 많은 준비를 통해 제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어 낸 줄만 알았던 세상적인 물질, 능력, 지식, 그 어떤 것도 해결해 줄 수 없었고 심지어 가족, 형제, 친구, 친척, 지인, 그 누구도 제게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의지가 될 수 없었고 위로도 될 수 없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적으로 풍족한 삶 안에서 누구보다 교만하고 자신감에 넘쳐있던 저를 처음으로 완벽히 깨뜨리시고 그분 앞에 홀로 선 저로 하여금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모습과 부족하고 어리석은 생각들을 정확히 돌아보고 느낄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 순간, 이 세상 모든 것들이 갑자기 낯설고 완전히 별거벗은 느낌으로 파도같이 밀려오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 너무 힘들어 포기하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제가 홀로 모든 것들을 짊어지고 가야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도 약하고 작은 저의 무력한 모습 때문에 무섭고 외로웠습니다.

그해 함께 3부 찬양팀을 섬기던 형제님께서 ‘날 세우시네’ 곡이 들어있는 CD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새벽 출근길 차 속에서 이 곡을 처음 듣는 순간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날 세우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고 그분께서 저와 함께하시길 잠잠하게 기다리신다’ 는 사실을 다시금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이 모

든 힘든 상황을 통해 주님께서 저를 이전보다 더 강하게 만들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눈물이 끊임없이 흐르며 그 어려웠던 상황에서도 감사한 마음이 생겼고 주님께 평온과 위로도 받았습니다. 매번 제 자신의 능력과 노력만을 의지하며 혼자 힘들어하던 어리석은 제가 주님께서 항상 같이 계심을 잊고 주님께 다가가지 않은 것이 바로 저였다는 것을 그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이전에도 항상 저와 같이하셨고 지금도 같이 하시고 앞으로도 같이 하실 것이라고 알려 주셨습니다. 저와 항상 같이 계신 주님을 잊고 왜 혼자라고 생각했는지 너무도 창피하고 죄송스럽고 어리석음을 깨달았던 순간이었습니다. 주님께선 제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제게 도움이 될 수 없게 하시고 오직 주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게 만드셨습니다. 제 주위에 있는 세상의 모든 우상을 완전히 버리는 순간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 뜻대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인도해 주시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순간도 이 찬양을 들을 때면 그 깨달음의 시간이 생각나 다시금 주님의 사랑을 강하게 느끼고 감사함으로 제 눈을 항상 적시게 됩니다. 찬양 인도자로서 회중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고 섬길 때 저의 눈물이 오히려 방해될까 아직 한 번도 회중 앞에서 이 곡을 함께 불러 보진 못했습니다. 비록 부족한 죄인이지만 주님이 저를 세우셨고, 세워 주신 이가 하나님, 높여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며 저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단지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제 그분을 통해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목자 찬양팀 인도자 김우찬 목사

Thanksgiving **복음 율놀이**

Thanksgiving 때 미국인들은 한국의 추석처럼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모여 파티를 열고 칠면조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Share Love and Thanks” 즉, 사랑과 감사의 이야기를 나누곤 합니다. C.H.스펠전 목사님은 “반딧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촛불을 주시고,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면 그 감사거리가 또 다른 감사를 낳게 되어 결국 커다란 감사로 발전한다는 진리입니다.

이번 Thanksgiving에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이 모여 시간을 보낼 때나 각 목장에서 목장 식구들과 자녀들이 함께 사랑과 친교를 나눌 때, 한국인이려면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고 즐겁게 어울려 놀 수 있는 우리나라 전통 놀이인 율놀이를 이용한 ‘Thanksgiving 복음 율놀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 *준비물: 윷, 윷판, 말, 간식, 말씀 암송 카드
- *진행: 일반 윷놀이와 진행 방법은 동일하다.
개인전으로 할 경우 말을 2개 사용하면 더 재미있고 긴장감 있게 여럿이 함께할 수도 있다

<윷판 설명>

- *말씀 암송: 준비한 말씀 암송 카드 한 장을 골라 자기 차례가 올 때까지 암송한다.
- *순종 : ‘낙심’ 점으로 간다 *불순종 : 처음부터 시작하기
- *낙심 : 1번 쉰다 *시험 : 처음부터 시작하기
- *사랑 : 한 번 더 던지기 *전도 : 말 하나 더 업고 진행하기
- *분냄 : 2번 쉬기 *유혹 : 1번 쉬기
- *찬양하기 : 찬양 및 율동을 벌칙으로 한다
(전체 팀이 참여해도 됨)
- *간식 먹기 : 준비한 간식을 먹는다





〈인도 전래동화〉

나무토막이 복이 된 사연은...

옛날 작은 마을에 가난한 어머니랑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장 보러 가는 길에 아들에게 필요한 것이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니, 돈이 충분치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도 혹시 어머니가 살 것을 다 사신 다음에 돈이 조금이라도 남으면 제게 복을 사다 주셨으면 해요.”

어머니는 주머니의 동전 몇 닢으로는 절대로 복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필요한 몇 가지 물건을 다 산 다음 몹시 슬퍼져 시장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다 바닥에 떨어져 있는 나무토막을 발견했습니다.

“이 나무토막을 아들에게 가져다주어야겠다. 이건 복도 아니고 그냥 나무토막이지만 우리 애는 이걸 쓸모 있게 만들 거야.”

아들은 어머니가 복을 사오지 못했지만, 나무토막을 받아 들고 고맙다고 인사를 하였습니다. 아들은 나무토막을 들고 밖으로 놀러 나가다 어떤 집 앞에서 울고 있는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왜 울고 계세요?”

“장작이 없어 불을 지필 수가 없구나.”

아들은 자신의 나무토막을 아주머니에게 주어 불을 지피도록 했습니다. 아주머니는 고맙다며 자신이 구운 납작빵을 주었습니다.

아들은 납작빵을 들고 길을 걷다 웅기장이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아주머니는 아기를 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왜 울고 계세요?”

“아기에게 먹일 것이 없어 그렇단다.”

아들은 자신의 납작빵을 아주머니에게 주었습니다. 아주머니

는 고맙다며 자기 남편이 구운 커다란 향아리를 주었습니다.

아들은 향아리를 들고 길을 가다 우물 옆에서 다투고 있는 한 부부를 만났습니다.

“왜 다투고 계세요?”

“이 마누라가 향아리를 깨뜨려 버려서 이젠 우물에서 물도 못 길게 되었구나.”

아들은 자기의 향아리를 그 부부에게 주었습니다. 남편은 고맙다며 자신이 입고 있던 코트를 벗어 주었습니다.

아들은 코트를 갖고 길을 걷다 말 위에 앉아 울고 있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왜 울고 계세요?”

“오랜만에 부모님을 만나러 가던 참이었는데 갑자기 강도가 달려들어 내 옷을 다 벗겨 갔구나. 이렇게 속옷 차림으로는 부모님을 만날 수가 없잖니.”

아들은 자신의 코트를 남자에게 주었습니다. 남자는 고맙다며 자신이 타고 있던 말을 주었습니다.

아들은 말을 타고 가다 잘 생긴 신랑이랑 악단 무리가 슬픈 얼굴을 짓고 길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멋진 신랑님이 왜 이렇게 슬퍼보이시나요?”

“신랑을 태우고 가기로 한 말이 오지 않아 결혼식장에 갈 수가 없단다.”

아들은 자신의 말을 신랑에게 주었습니다. 모두 아들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였습니다. 신랑은 뒤돌아서더니 악단이 갖고 있던 복을 집어 들었습니다.

“네가 내 결혼식을 치르게 해 주었잖니. 이건 내 고마움의 선물이란다.”

아들은 복을 갖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에게 어떻게 나무토막이 복이 되었는지를 설명해 드리려고 말입니다.



에녹과의 만남 - 정운길 권사님편

‘에녹과의 만남’을 위해 정운길 권사님을 만나 뵈었다. 92세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만큼 건강하고 고우신 모습이었다. 연두 빛깔로 말끔히 정돈되고 예쁜 꽃으로 장식된 거실 분위기는 화사하고 밝은, 소녀 같으신 권사님의 순수함과 거의 흡사했다. 오늘의 만남은 금보다도 귀한 믿음을 소유하신 권사님의 살아오신 발자취를 듣고 싶어서였다.

권사님께서서는 어릴 때부터 혼자 교회에 다니셨고 그로 인해 혼도 많이 나고 아버님이 성경책을 모두 찢기도 하셨다. 하지만 그때는 전도하면 상 받는 것이 좋아 밤낮없이 교회에 다녔고 철었던 시절이라 매주 권사님 반이 일등 해서 상 타는 것이 좋아 교회에 다녔었다. 6.25 때 월남한 후, 피난 시절부터 생계가 너무 어려워 주일 성수도 제대로 못 하다가 한때는 기복 신앙에 빠지기도 했었다.

약국을 경영할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구역장인 일명 ‘예수 아줌마’란 분이 매일 약국에 출근하다시피 하면서 전도를 하였고, 그분을 통해 50대에 순복음교회에서 다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 세월이 흘러 교회에 다니면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기쁨과 즐거움이 넘쳤고 자녀들은 이미 교회에 다니고 있었지

만, 그동안 믿지 않던 남편도 하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다니게 되었다. 어릴 때부터 공부도 잘하고 배우는 것을 좋아해 성경대학과 성경학교에서 성경공부도 많이 하고 구역장으로도 오래 섬겼다.

60대 후반까지 20년간 약국을 경영하여 수많은 약 이름과 처방법을 알고 있었지만, 올해 들어서는 약 이름조차 전혀 생각이 나질 않을 만큼 기억력이 많이 감퇴하였다고 하시면서 기억력 회복을 위해 여러 번 기도를 부탁하셨다.

1985년 미국에 오신 후 지금껏 우리 교회를 섬기며 신앙생활 할 수 있음이 너무 감사하며 여생을 조국과 미국,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다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시면서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면 선교지를 밟고 싶은 간절한 소망을 내비치셨다.

매일 새벽, 시편 23편을 암송하면서 잠자리에서 일어나시는데 요즘도 걸어서 새벽기도를 다녀오신다고 한다. 몇 차례 넘어지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빠는 다치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고 건강 주심이 감사하고, 무엇보다 가까운 곳에 교회가 있



매일 새벽, 시편 23편을 암송하면서 잠자리에서 일어나시는데 요즘도 걸어서 새벽기도를 다녀오신다고 한다. 몇 차례 넘어지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베푸는 다치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고 건강 주심이 감사하고.....



어 새벽 기도를 다닐 수 있는 것이 최상의 기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권사님께서 산책할 때나 틈날 때마다 늘 말씀을 암송하신다고 한다. 1992년 우리 교회에서 열린 성경암송대회에서 1등을 한 적도 있고 젊은이들도 하기 어려운 성경쓰기도 하실 정도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정말 크셨다. 권사님께 성경암송을 부탁했더니 조금 전,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기도 부탁을 하시던 것과는 사뭇 거리가 먼 생기가 넘치는 모습과 힘찬 목소리로 평소에 즐겨 암송하시던 말씀들을 은혜롭게 낭송해 주셨다. 권사님이 힘차게 외우는 암송 구절 가운데는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말라기 3장10절 말씀도 있었다.


“요즘도 날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405장 찬송을, 여러 번의 심장 수술로 육체의 연합함을 안고 살아가는 작은 아들을 생각할 때마다 43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를 늘 찬양했었는데 온 가족의 기도 제목이었던 아들을, 올해 60세로 건강 지켜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434장 ‘나의 갈길 다 가도록’ 을 평생의 찬양으로 부르고 있어요.”라고 하신다.

곱고 아름답게 나이 드는 비결에 대해서는 말씀과 찬양, 기도의 삶 이외에 예수 믿고 정말 좋아서 전도를 많이 했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자의 삶을 산 것이 가장 큰 비결 같다고 하시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 드리셨다.

지금도 말씀따라 온전한 십일조 생활과 성경 암송, 새벽 제단 쌓는 일을 변함없이 하고 계시는 권사님의 삶이야말로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우리로 하여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처럼 믿음의 선진들이 지켜왔던 바로 그 모습과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뛰는 권사님의 건강한 후반전의 삶의 모습을 엿볼 수 있게 하는 것 같았다. 정운길 권사님과의 만남을 마치면서 나의 뇌리 속에 잔잔한 파문이 일기 시작했다.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과 나이 늙어 하나님의 크신 축복임을 새삼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75세 때 부르심에 순종한 아브라함이나 80세에 바로 앞에 선 모세, 85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라고 기도했던 청년 갈렙처럼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풋대를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다 하는 삶이기를 소망한다.

-편집부 김정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을 알고”

-요일 4:7 -

발행인	손원배
편찬인	유탉중
기획	이운선
진행	김정신/김범진/장은영
교정 및 교열	김백미/정현주
사진	김범진/윤영숙
편집디자인	홍정희

*임마누엘 송년호는 2013년 한 영혼을
사랑한 올해의 간증과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로 꾸며집니다.

4435 Fortran Drive,
San Jose, CA 95134
Tel. 408. 263. 5100
www.kepc.org

 **임마누엘장로교회**
KOREAN EMMANUEL PRESBYTERIAN CHURCH